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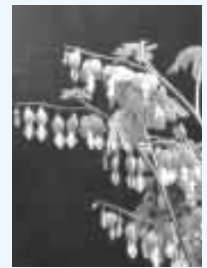


2001 **5**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5월호(통권151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특집 청소년의 달 정부의 청소년 육성정책 · 청소년 문화 이대로 좋은가? · 전통관례와 현대식 성년례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㉔ 영덕문화원 | **이사람** 야생화 전문점 '돌식와 꽃님이' 운영하는 김필봉씨



어둠을 밝히는 연등일까? 할머니가 지어준 복주머니일까?
금낭화. 4~6월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산 바위틈에서 많이 자라는 양귀비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이 꽃을 전라도 지방에서는 세배돈을 받아 넣어두는 복주머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머느리주머니, 금낭화, 머늘취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진:김필봉) 관련기사16면

2001년 5월호(제15권 5호 통권 151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권 편집인 / 李 秀 洪 사무총장 / 安 辰 泳 편집주간 / 柳 長 泳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5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차
레

4 ◆ 권두칼럼	‘지역문화의 해’를 통한 우리문화의 발전 모색	송승영
6 ◆ 특별기고	‘비빔밥’ 식 우리나라의 혼인문화	이정량
11 ◆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㉔	신덕용 영덕문화원장 / 김우연 영덕군수 인터뷰	강민철
16 ◆ 이사람	“빌딩숲에 야생화 씨 뿌리고 싶어요”	강민철
- 야생화 전문점 ‘들쇠와 꽃님아’ 운영하는 김필봉씨		
18 ◆ 컬처포커스	고대민족문화 10권짜리 ‘한국민족의 세계’ 발간	강민철
19 ◆ 뉴스	권용태 강남문화원장 서울시지회장 취임	강민철
20 ◆ 특집 청소년의 달	정부의 청소년 육성정책 청소년 문화 이대로 좋은가? 전통 관례와 현대식 성년례	김두현 김영수 편집부
26 ◆ 이달의 문화인물	선·교종 합일에 힘쓴 보조국사 지눌	편집부
27 ◆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 파일	강원도서 첫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열려 청소년과 지역민들이 직접 만든 지역문화 영상물을 공모합니다	강민철
35 ◆ 인사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취임	편집부
36 ◆ 민속	안성풍어제	당진문화원
38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액자속 민화를 핸드폰주머니에, 쿠션에, 스커프에	강민철
- 민화 응용 쿠션과 핸드폰 주머니 만드는 오영미씨		
40 ◆ 세시풍속	초파일 관등풍습	박후식
42 ◆ 축제	“홍길동은 실존 인물”... 재녀와 함께 가볼만	강민철
44 ◆ 유성의 설화	금강산 포수	유성문화원
47 ◆ 오피북	이재호 목사 설득해 독일인으로선 첫 한라산 올라	제주문화원
52 ◆ 내고장 명소	광한루	남원문화원
54 ◆ 행사	강형은 韓日 새시대 열 ‘돌다리’	강민철
58 ◆ 전통의 멋과 맛	노리개	편집부
61 ◆ 문화계 소식		편집부
62 ◆ 문화원 소식		편집부
68 ◆ 시간안내		편집부
73 ◆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최우수상 논문	한양의 용문화 오방도룡제에 대한연구 ㉔	김영섭

‘지역문화의 해’를 통한 우리문화의 발전 모색

2001년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지역문화의 해’다. 일상으로 서울중심의 현대문화를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해와서 인지 ‘지역문화’라고 일컬으면서도 어쩐지 낯설어 하며 궁금해 한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지역문화’가 거론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는 게 당연하기도 하다.

대다수가 지역문화를 수도권 중심의 중앙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울의 대중문화가 정보화의 발달로 농촌의 안방까지 차지하다 보니 그 만큼 지역문화의 이해도가 낮아지고 중요성이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역문화의 정체성(正體性)을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고 만다.

서울중심으로 문화기획 전문가들이 다수 몰려 있으니, 지역마다 무슨 축제나 예술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름만 지역성을 띄고 내용물을 분석해 보면 대동소이 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중앙문화의 보급과 기본구조를 변용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 승 영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우리 근대문화의 형성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간단치 않다. 조선조 이래 산업사회 구성 전까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일방적인 보급으로 진행되어 문화 자체가 색깔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리둥절하게 살아왔다. 지역문화 자체도 정형화된 틀이나 주어진 절차에 따르고 유교 격식을 중요시 함으로써 창의적인 개선이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가 정점으로 치닫던 90년대 이후 문화지변이 지방자치와 더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일반을 지배층이나

지역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주민중심 생활문화의 발전모색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부지런히 이끌고 표현예술을 적극 장려해 나감으로써 가능해진다. 어느 한 분야만의 발전에 치중하거나 관심밖에 두면 지역문화의 특색과 개성화가 저해 될 것은 자명해진다. 지역문화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 주민 중심으로 순리에 따라 자라게 해야한다.

여유있는 사람들이 여흥으로 이끄는 문화가 아니라 대중이라는 다수의 심리가 적절하게 녹아 들어 저마다의 색깔과 향기가 발산되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라잡아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몇몇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하고자 문화재단 설립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역마다 주민들이 바라는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 문화의 획일화에 맞서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정립에 힘쓰는 지역문화 기획 전문가들이 종종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한편, 지역 문화의 해 추진위원들의 구성도 지역 문화 전문가라기 보다는 서울 중심의 문화기획 전문가들로 짜여져 일부 지역문화 연구자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도시문화와 지역문화의 벽을 허물자는 자세는 상호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의 수립과 진행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초에 제주에서 지역 문화의 해를 기념하고 활로를 모색하자는 기념 햇불을 높이 치켜 올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겠다.

그렇다면 지역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문화의 발전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것인가?

충북대 강형기 교수는 “지역문화를 부유하게 이

끌기 위해서는 문화일반을 형성하고 있는 복합적인 생활문화가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다함께 도모해야 한다. 생활 문화의 폭과 수준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유산문화(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와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예술문화(표현예술의 진흥과 장려)의 발전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주민중심 생활문화의 발전모색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부지런히 이끌고 표현예술을 적극 장려해 나감으로써 가능해진다.

어느 한 분야만의 발전에 치중하거나 관심밖에 두면 지역문화의 특색과 개성화가 저해 될 것은 자명해진다. 지역문화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 주민 중심으로 순리에 따라 자라게 해야한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획가들이 서울에 모여있어 지방문화의 기획 부채를 외칠 때가 아니다. 그 지역문화가 곧 그 지역의 산업이고 그 지방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때이다. 여기에는 지방 자치단체들도 창의적인 문화행정을 표방하여 가장 그 지역적인 문화가 바로 한국적인 것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빔밥’ 식 우리나라의 혼인문화

혼인의 의미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두가지를 든다면 혼인과 직업이라고 하였다. 위 두가지가 성공과 행복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직업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삶을 풍족하게하고, 남도 도울 수 있는 共生의 果實을 生産하여 보람을 갖는 善業이요, 文化的 行爲라면 婚姻은 生을 영속시키는 자연의 섭리이며, 交媾(사랑)에서 오는 음양의 조화는 행복의 씨요, 열매라 하겠다.

누가 말했던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창조에 있다고, 이 우주속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사람이고(天上天下唯我獨尊), 천지간 만물 중에서 인간이 최고로 귀하다 하였으니 그 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인간이 인간을 창생하는 일이요, 그 창생은 男이나 女가 혼자할 수 없고, 반드시 男女가 몸을 합해야 됴므로, 婚姻을 男女合體之意라고 단정하였다. 陽(男)은 陽 홀로 生命力을 갖지 못하고 陰(女) 또한 陰 홀로 生命力을 가질 수 없으니 陰陽의 조화야말로 生命의 뿌리다. 혼인을 통해서 陰陽의 구실을 다하여 그 格을 完成시킬 수 있기 때문에 婚姻을 또한 사람 살이의 큰 일 중의 큰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孔子家語에 婚姻을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婚姻을 함으로써 人格이 完成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婚姻은 하나의 天命으로 생각하였으며 하늘이 정한 짝(配匹)이라 하여 한 생명 다할 때까지 갈라설 수 없는 한몸으로 생각하였다. 만일 혼인을 못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어른대접을 받지 못했으며 처녀총각으로 죽게 되면 몽달귀신으로 원귀가 되어 恨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이미 죽은 처녀총각끼리 死婚까지 시켰을까!

그런데 요즘은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西歐는 30%가 넘고, 우리나라도 90년대 10년사이에 14%이상이 나이많은 독신 남녀가 급증했고, 이혼율이 25%가 넘고, 그 증가율은 세계적이다.

이혼은 단순히 둘만을 갈라놓지않고, 양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 심



이 정 량
사단법인 한국전례원장

각한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의 기반인 가정이 결손가정이 되어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옛부터 있어온 우리 고유의 전통혼인문화의 정신과 풍속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이해득실과 감성적인 안락만을 추구하다 보니 족보가 없고, 국적도 없으며 최소한의 文化的 형식마저도 편리위주로 간소화되어 민족문화의 正體性도 사라지고 있다.

가령 家系를 이어가고, 가정의 전통인 가풍과, 우리의 근본뿌리인 부모자식간의 慈孝와 兄友弟恭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가정문화의 틀이, 바른 혼인정신과 부부의 인격적 합일과 끈끈한 정에서 이룩된 것이고, 남녀기능에 합당한 충실한 생을 다할 수 있는데, 오늘의 산업사회와 급박한 사회기능의 변화가 핵가족을 가속화시키고, 핵가족마저 이산화시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자리를 잡을 수 없고, 남녀공히 갖게 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은 특히하면 이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創生의 기본이며 人倫의 뿌리요, 社會의 기반인 동시에 人格의 完成이요, 행복한 삶의 출발인 婚姻文化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혼인절차와 조건의 변화

우리 전통혼인문화는 농경사회의 관습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농경사회의 생활철학은 첫째가 자연 순리에 따르는 것이고,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男女의 기능적 유별이(차별이 아니었다), 가정에서 사회로 국가통치에까지 일관되었다. 곧 가정문화가 사회문화이고, 국가문화를 특징지을 수 있었다.

남녀가 기능적 유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男女平等을 전제로 한다. 곧 男女平等精神이 전통문화의 밑받침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男女人格平等이다.

이점은 우리의 전통혼인문화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먼저 전통혼인례의 절차속에 남녀평등의 의미를 보자. 六禮를 치르는데 ① 婚談에서 중매를 통하여 남자에게

에서 청혼서로 청혼을 하고, 여자측에서 許婚書를 보낸다. ② 신랑의 사주(四柱)를 신부댁에 보내면 ③ 신부댁에서 혼인날짜를 택일한다. ④ 택일편지를 받으면 납폐라 하여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보낸다. ⑤ 대례는 신랑이 신부댁으로 가서 하게된다. ⑥ 대례가 끝나면 신부댁에서 신방을 치르고, 신부가 시댁으로 가는 신행이 있게된다.

위와 같이 상호간 동등하고 조화로운 교환관계로 진행되었다. 특히 ⑤의 대례는 신부댁에서 하는 것은 중국의 친영(신부가 신랑집에 데려가 혼례를 치름)과 다르다. 친영은 남자위주의 절차이다. 또한 ⑥의 신방을 치르고, 바로 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부가제(婿留婦家制)라 해서 얼마동안(대례가 봄이면 가을까지, 또는 1년이나 첫아이를 생산한 후) 신랑이 신부댁을 드나들면서 혼인생활이 다소 익숙해진 후에 신행을 한 것으로 보면 얼마나 신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을 배려한 것인가 알 수 있다. 우리의 전통혼인풍속을 조선조에서 朱子家禮를 끈질기게 주창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婚姻文化의 正體性으로 이어져왔다.

요즈음도 四柱나 납폐(함보내기), 폐백(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그 속내의 뜻이 변질되었으나 아직도 남아 있다.

사주(四柱:四星)는 신원을 밝히는 신분증명서이며, 납폐(納幣)는 선비(신랑)가 여사(신부)에게 보내는 禮物로 간단한 禮를 갖추는 것이다. 소위 치참금하고는 뜻이 다르다. 그런데 요즘 함보내기가 마치 家勢를 나타내는 過禮에 흐르고, 신부가 시집에 보내는 선물(예단)이 財物化되어가고 있어 신랑신부가 서로 예를 갖추는 건전한 풍속이 속물화되었다.

특히 신부가 새살림살이 일체를 장만하여 시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시집의 전통살림살이의 맥을 끊는 결과가 된다. 가풍이라는 것이 살림살이의 용구에도 배어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혼인조건을 보면 그 무게 중심을 저울에 달아 이것저것 환경을 감안하여 수평이 되어야

중매가 가능했다.

A라는 家庭文化와 B라는 家庭文化가 엇비슷해야 婚談이 진행된다.

土農工商의 가치관에서 신분적 文化가치(血統과 族譜)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며 윤리적, 도덕적 가풍이 중요하였다.

인간이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文化的 갈등이라고 한다. 특히 한 가정의 傳統文化의식은 바로 그 사람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삶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만, 정서가 다른데서 오는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정서는 지식이나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얼굴도 보지않고 혼인했지만 家庭文化가 엇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점점 정이 두터워지고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와같이 양가정의 文化的결합이 전통혼인조건이었기 때문에 양가의 문화양태를 잘 볼 수 있는 부모의 선택이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전통문화의 단절과 세대간의 문화의식의 차이가 심하여 세상살이의 경험미 부족 한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가정문화 또는 내재된 정서를 알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70년대 이후의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는 바로 윗세대의 가정문화를 구체적으로 체감하기란 매우 어렵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너무 많고 거지가 부자가 된 사람이 너무 많다.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의 권세와 부와 명예다. 30여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전혀 딴 환경이었던 잠재된 가정문화를 알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젊은이들이 혼인을 선택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할 함정이다. 모 여자대학에서 매년 졸업생을 상대로 혼인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인선택조건으로 ① 능력 ② 외모 ③성격 등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①의 능력은 변화가 없고 ②와 ③은 순서가 바뀔 때도 있다고 한다. 무슨 뜻인가?

①의 능력은 바로 재력이고 사회적 자격이다. 검사, 판사, 의사, 교수하는 식이다. 콩나물장수 아들이 공부 잘 해서 판사가 되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자라면서 형성된 문화의식은 어떨까? 판사가 되었다고 바뀔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다고 해서 심성이 바르고 바람직한 인격자는 아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좋은 것으로 평생 만족할 수 없다. 성격은 교재하는 동안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다. 믿음하고 성격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겉만 보고 혼인하기 때문에 며칠 못가서 갈라서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남매를 두었는데 딱 한마디 주문만을 하였다.

“정서가 같은 사람과 혼인하라고.”

혼인의 사회적 기능과 돈 문제

건전한 혼인(혼인문화)은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건전한 가정문화가 건강하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혼인은 돈자랑도 아니고 돈만으로 훌륭한 혼인생활이 영위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는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라면 상호문화적 동질감이 없거나 정서가 상통하지 않으면 노력과 정성은 피곤할 뿐이다.

소보원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비용이 1년에 약 36조원이나 되고, 1인당 비용이 미국의 6배, 홍콩의 5배가 된다고 한다. 돈은 많이 쓰는데 이혼율이 거꾸로 가고 있다.

혼인선택은 당사자가 하고 비용은 부모가 대는 것은 권리와 책임의 불합치다. 이것은 삶의 기본자세부터 잘못 출발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엄청난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미성년자가 혼인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도 당사자가 져야 한다.

부모는 형편에 맞게 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 더

욱이 자식혼사에 부모의 체면을 앞세우거나 가세를 뽐내려고 하는 것은 혼인의 의미를 비속하게 만들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한다.

잔치꾼(손님)에게 賀禮金品을 받는 것은 慶大事에 할 짓이 아니다. 잔치에 초대를 했으면 정성껏 접대를 해야지 밥값 몇 10배의 金品을 받기위하여 접수대를 만들어 놓고 수금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慶事가 되겠는가? 말은 상부상조 하지만 가까운 일가친척이나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끼리 두레로 하는 부조행위가 변질되어 사회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면서 뇌물성에 가까운 金品수수행위는 온 국민을 마음 무겁게 한다.

우리의 혼인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

(1) 용어문제

◎ “婚姻”이라는 말은 남자가 장가가고(婚), 여자가 시집가는 것(姻)을 뜻한다. 헌법에 민법에도, 혼인신고서에도 婚姻으로 되어있다. “結婚”이라는 말은 남자가 혼인을 주도하는 남자위주의 용어로 우리의 남녀평등정신에 맞지 않는다. 본래 이 말은 일본사람들이 쓰는 ‘갯콘’이란 용어다.

만일 신부집에 손님으로 가서 “祝結婚”이라고 봉투에 쓰면 여자보고 장가가라는 뜻으로 망발이다. “祝婚姻” 하면 어느쪽도 상관없다. 結婚이라 했으니 離婚이라는 상대어가 숨어있다. 婚姻은 영원한 동반자로 한 몸이 되니 이혼할 수 없지만 結婚하게 되면 이혼도 하게 되는 것이다. 結婚 상담소는 동시에 이혼상담소가 되는 것이다.

◎ “納幣”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다. 선비(신랑)와 여사(신부)가 간단히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하겠다는 의미의 증표요, 인사다.

그런데 요즘 婚禮장소에서 혼인식이 끝난 다음 소위 폐백실이라는 곳에서 전통혼례관복을 입고, 폐백을 드리는 해괴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 시부모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말인가?

원래 신부가 시댁에 처음 오는 날 당연히 시부모에게 큰 인사를 드리게 된다. 이것은 한자용어로 현구고례(見舅姑禮)라 한다. 시부모를 뵈는 의식은 시집온 신부가 시가의 가풍을 존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가정을 번성케 하겠다는 맹세의 의식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절을 36번이나 하였다. 이것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친정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신행오는 날 시부모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듣는 의식이 되어야 하는데 사진찍기 위한 소위 폐백의식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비용만 많이 든다. 신랑, 신부는 신방(부부합궁)을 치르기 전에는 혼인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인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폐백이라는 용어는 “시부모께 큰 인사”로 해야 옳다.

◎ “賀客”은 잔치꾼 또는 손님으로 해야 옳다.

“賀”라는 것은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 쓰는 용어다. 과거에 급제하거나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 祝賀를 한다.

(2) 건전한 혼례문화정착을 위한 제언

① 잔치꾼(손님)초대

아무나 잔치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 자식을 못둔 사람, 중병이 있는 사람, 상중인 사람, 못된 짓을 한 사람, 당사자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초대해서도 안되고 가서도 안된다. 엄청난 비용과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비용을 줄이는 핵심사항이다.

구라파나 미국, 일본 등지에도 대개 50~60명, 많아야 70~80명을 넘지 않는다. 양가 합해서 100명 이내로 하는 것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예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혼인장소는 얼마든지 쉽게 정할 수 있다.

② 혼인시간

婚姻禮를 본래 昏禮라고 했다.

“昏”은 해가 넘어갈 무렵을 뜻한다.

혼인이 男·女가 따로 陽과 陰이 분리된 混沌

(chaos)상태에서 陰陽의 合一로 조화(cosmos)를 이루는 것으로 해가 질 무렵이 陰과 陽이 바란스(balancing)를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昏禮로 했던 것이다. 지금도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 초저녁에 혼인을 하면 분위기도 살고, 손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잔치꾼이 될 수 있다. 이점도 일을 중단함으로써 오는 큰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주말은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

③비빔밥 신식 혼인식

◎ 신랑, 신부 복장: 신랑은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 신부는 초록저고리에 분홍치마로 하자.

예물로 이미 양가에서 준비된 옷이고 새 옷이다.

혼인예식장에서 빌려 입는 드레스는 서양사람의 춤옷이다.

신랑의 턱시도어도 무도복이다. 서양은 혼인식이 끝나면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에서 신랑, 신부가 한 바퀴 춤을 추는 것으로 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춤 옷을 입어야 한다.

◎ 신랑, 신부 입장: 신부아버지가 신부손을 잡고 들어와 신랑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목문화의 유산이다. 신부보호자의 바틴매치다.

혼인날은 신랑, 신부는 스스로 최고의 상전 노릇을 해야한다.

신랑의 신분이 비천하여도 이 날은 당상관(장관) 옷인 관복을 입혔고, 임금님이 지나가도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신랑이 입장하면서 양가 부모나 주례자에게 꾸벅 절을 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신부가 애원물처럼 부모와 신랑에게 손을 잡혀 의지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당당히 홀로 입장하되 신부는 친구나 아동이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좋다. 영국도 그렇게 하는데 손잡고 입장하는 것은 독일에서 온 것이다.

◎ 맞절인사: 옛날에는 먼저 전안례(奠雁禮)라고 하여 기러기를 놓고 북향 재배하였다. 부부의 백년 해로를 주관하는 북두칠성과 자미성의 두별에게 맹

세를 한 다음, 대례청에서 신랑, 신부가 큰 절(交拜禮)로 주고받는 절을 하였고, 상대방을 서로 받아들이는 합환주를 주고받은 다음, 이제 둘이 완전한 짝을 이루었다는 뜻으로 표주박에 술을 따라 교환하는 합근례(合巹禮)를 하였다. 요즘의 소위 맞절은 싱겁기 짝이 없다.

신랑, 신부의 절은 소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이 무거움을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하여 합궁(合宮)전에는 부모에게는 물론, 어떤 손님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다.

◎ 혼인서약, 혼인선언: 불란서에 시청관리가 나와 민법의 혼인조항을 놓고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는 것을 카피한 것이다.

◎ 주례사: 이태리에서 하는 식을 배긴 것이다. 대체 어디에 주례사가 있는가. 우리의 전통 혼인례야 절차 속에 수 없는 맹세가 들어있어, 주례자의 군더덕이 말이 필요 없지만, 불교, 기독교 같은 종교예식에도 주례사는 없다.

◎ 음악: 탄탄 따 ~ 다 하는 Wedding march는 독일 바그너가 작곡한 오페라 서곡인데, 혼인날 신랑 로엘그린이 살인하여 도망가고, 신부 로자가 쇼크사를 한 내용이다. 영국 빅토리아 공주가 바그너를 좋아해서 본인의 혼인식 wedding march로 쓴 것이 유행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 내빈끼 인사: 손님 중에는 신랑 신부의 아랫사람도 있는데 큰절로 인사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끼리 나눈 정중한 절이 자꾸 가볍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합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인사부터 하는 것은 망발이다.

맺는말

혼인문화는 민족문화 중에서도 가장 정체성을 가진 문화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난장판이 되어있으니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돈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 바른 혼인문화를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세워 주기를 바란다. 

영덕은 유·불·해안문화 공존...동해별신굿·월월이청청도 유래 “나이가 들수록 향토문화에 매료”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신덕용 영덕문화원장 인터뷰

왕 북 2차선의 영덕행 34번 국도. 눈앞을 가로막는 봉우리를 휘돌아 나가면 시골 처녀 웃음처럼 연분홍의 복숭아꽃밭이 흐드러지게 펼쳐지고 군데군데 덧없는 세월을 얘기하듯 다 기울어져가는 시골집들이 정겨움을 더한다. 도시인의 욕심을 누르지 못하고 신덕용 영덕문화원장(68)을 만났을 때 ‘길만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했다. “나도 젊은 시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모처럼 고향에 다니러 올 때마다 ‘하필이면 나의 조상은 왜 이런 산간벽지에 터전을 잡았을까? 경주나 안동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웃음) 그런데 차츰 나이가 들면서 나옹선사나 목원 이색·신돌석 장군과

같은 우리고장의 훌륭한 선현들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내고장이 다른 고장 못지 않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고장’이란 자긍심마저 생기더군요. 그래서 공직에서 정년 퇴임하고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고장에 대한 문화를 찾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문화원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지난 75년 금릉군 공보실장을 거쳐 포항시 총무과장·영덕부군수·포항문화예술회관장을 역임한 신 원장은 99년 2월 사임한 권중대 전 원장의 보컬 선거를 통해 문화원장에 선출돼 2002년 7월까지 문화원장직을 맡게 됐다. 신 원장에게 영덕문화원의 현황과 비전을 들어봤다.

영덕문화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우리 고장을 빛낸 나옹선사나 목원 이색 등 명승거유(名僧巨儒)와 신돌석장군과 같은 구국열사(救國烈士)의 업적을 발굴 계승하기 위해 학술발표회나 성역화사업에 앞장서는 한편 오늘을 살고 있는 영덕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해 마사지·노인대학·주부가요·서예·도자기공예·꽃꽂이·풍물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덕의 문화는 한마디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동해안에 위치한 우리 고장은 북으로는 유교 문화의 본산인 안동과 남으로는 도시문화권인 포항을 비롯해 불교문화의 고도인 경주와 연결하고 있어 유·불·해안문화가 공존한 다양한 문화의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와 불교 문화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지만 동해별신굿·월월이청



신덕용 영덕문화원장



△ 초등·중학교 충효예절교실



△ 경북도립 국악단 초청공연



△ 목은 이색선생 학술발표대회

청은 우리고장에서 유래된 독특한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형 문화원은 도시형 문화원과 비교해 어려모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

“70년대 12만명이던 영덕군의 인구는 현재 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노령화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백여명의 문화원 회원중에도 40대 이상층이 60~70%를 차지합니다. 이에따라 문화행사에 필요한 인적자원확보와 소요경비조

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벼슬쇠 풍물놀이패나 사진작가협회·무고무용단·여고무용단등 동호인협회 및 독지가의 협조로 각종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그리고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문화원 자체 예산이 전무해 지역문화를 발굴·보존하는 일에서 부터 독자적인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다행히 영덕군의 지원을 받아 우리고장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고려말의 궁중무용인 무고를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로 17년째 우리 고장의 독특한 문화행사인 복사꽃 축제를 열어 오고 있는 것이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영덕군과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까?

“김우연 군수님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저희 문화원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지방자치제 시대인 만큼 지방에서 일어나는 행정이나 경제·문화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큰틀로 보면 영덕군의 문화창달은 영덕문화원이 해야 할 일인 동시에 영덕군의 업무이기도 한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원이 군과 아주 별개의 독립적 단체가 아니라, 그렇다고 군 산하단체라고 하기도 우습지만, 군이 마땅히 할 일을 보좌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군수를 만나면 ‘문화원 지원 한다고 하지 마소, 우리가 군을 도와주는 겁니다’ 고 말하기도 합니다 (웃음)”

앞으로 문화원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문화원사를 재건축하는 일입니다. 지난 73년에 지어진 현 건물은 원사가 아주 낡은데다 부지가 좁아 주차공간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화원사를 이전하거나 재건축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정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은 단돈 5천원 갖고도 별별 딸만큼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주위의 협찬을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점을 감안해 도시와 농촌지역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차별적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문화의 세기니, 지방문화의 해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원장과 인터뷰를 하는데 밖에서는 팽과리·징소리가 떠들석 했다. 동석한 이완섭 사무국장(42)은 제 17회 복사꽃 축제 식전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영덕문화원의 풍물반이 연습중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때 신원장이 뭔가 생각난듯 이 국장을 가리키며 “대학은 경제학을 나왔지만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물론 소설·취미가 많다. 이국장은 한문세대도 아닌데 고서나 윤선도 시등을 번역해 낼 만큼 옛것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안다. 옛말에 ‘장님 방울 소리 따라 다닌다’고 했는데 나아말로 이국장 따라 다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덕문화원은 지난해 5월 1일 목원 이색선생 학술발표회를 연데 이어 오는 5월 9일에는 나옹선사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하나, 지금 영덕문화원은 6월말 발간 예정인 두권짜리 영덕군지를 발간하기 위해 신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신원장은 “돈보기를 두개 겹쳐 써야 겨우 글을 볼 수 있어 원고를 살펴보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며 안경을 추켜 올렸다.

김우연 영덕군수 인터뷰

“꼭 한번 영덕을 찾아 고려 태조 임금님의 수랏상에 올랐던 영덕대게의 고향에서 최고의 맛과 꿈, 그리고 낭만을 만들어 소중한 삶의 추억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4회 영덕대게축제에서 김우연군수(58)는 앞으로 영덕대게 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영덕군에서는 올해로 17회째 복사꽃 큰잔치가 열리고 있지만 4년전 부터 군민의 날이 제정되면서 영덕대게축제가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우연 영덕군수

나옹선사·신돌석등 역사인물 탄생... ‘문화’ 공무원 교육도 힘써
“세계적인 대게 축제로 키울터”



△영덕대게요리대회



△김우연 영덕군수(오른쪽에서 두번째 양복입은이)가 영덕대게요리대회에서 수상한 어머니 홍명희와 아들 이승형(요리사모자쓴이)팀이 만든 요리를 맛보고 있다.

또한 그 즈음 텔레비전에서 영덕을 소재로 한 ‘그대 그리고 나’가 방영돼 ‘포항위에 있는 조그만 군(郡)’으로만 알려졌던 고작이었던 영덕에 대한 관심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지금은 영덕하면 대게로 통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게축제에는 문화욕등 연예인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사랑음악회가 열린 것을 비롯 영덕대게사생대회 · 영덕대게요리대회 · 영덕대게달리기 · 영덕대게정답맞추기 · 동해별신굿 · 영덕대게무게맞추기 · 영덕대게학술심포지엄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대게말고도 영덕엔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더러 있다. 그중의 한명이 왕사인 나옹선사로 나옹의 어머니가 세금을 못내 포졸들에게 끌려가다가 진통을

해 강변에서 나옹을 출산했는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수많은 까치들이 날아와 임부를 감싸더라는 전설이 내려온다. 이곳은 지금 까치소로 불린다.

이밖에도 영덕에는 천혜의 자연과 문화적 자산이 적잖다. 영덕 대게 축제가 열리는 강구항만 해도 어느 이름난 항구 못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포근하기 그지없다. 영덕은 대게 말고도 ‘금테두른’ 은어 · 미역 · 김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영덕군은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부분의 행정력과 재정을 문화사업에 기울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생가지를 성역화한데 이어 올해는 16억원을 들여 도로 단층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예주 문화회관 건립에 51억8천만원, 괴시와 인량등 전통 유교마을 조성에 37억원, 나옹선사가 창건한 장육사 복원에 2억원, 봉수대 복원에 6억원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목은 이색선생의 전국 규모 학술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올해 5월 9일에는



△야간에 열린 영덕사랑 음악회

영덕군과 불국사가 주최해 나옹선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전국학술발표회를 가짐으로써 군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영덕군은 문화관광 담당 공무원들을 에든버러 축제등 유명 축제를 돌아보고 실력을 연마토록 하는등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같은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영덕군은 최근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사 주최 · 대한매일신보사 후원으로 열린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게튀김과 해물과의 만남



△보양대게찜



△대게살 잡채



△대게탕수육



△한방대게영양죽



△영덕대게 그라탕

영덕대게 요리대회



△영덕대게영양술밥



△영덕게살 스테이크



△술잎대게만두



△ '대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영덕대게샌드위치

영덕군민과 경주대 · 대경대 · 안동대학교 학생 1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영덕대게요리대회'에서는 보양대게찜 · 코스별대게요리 · 영덕게살스테이크 · 영덕게살 크림스프 · 영덕게살그라탕 · 대게탕수육 · '대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 한방대게영양죽 · 술잎대게만두 · 영덕대게장돌술밥 · 영덕대게비빔국수 · 영덕대게그라탕 · 대게살 잡채 · 대게살 비빔밥 · 대게살 샌드위치 · 대게튀김과 해물과의 만남등 20여종에 가까운 요리가 선보였다. 대상은 모자(母子)가 함께 나와 '영덕대게모듬'을 요리한 홍명희 · 이승형팀(영덕읍 창포리)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영덕대게 모듬

“빌딩숲에 야생화 씨 뿌리고 싶어요”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금 낭화 · 애기별꽃 · 천남성 · 설앵초 · 할미꽃 · 하늘매발톱 · 매미꽃 · 예쁜이국화 · 애기코스모스 · 패랭이. 무명으로 한세상 살다가는 민초처럼 들바람을 맞으며 피고 지는 야생화들. 누군가 저마다의 이름을 불러준다.

김필봉(37). 산천을 이리저리 떠돌다 가시덤불속에서 샅노랑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낭떠러지 바위틈에 묻어있는 몇알갱이의 흙에 뿌리를 묻고 수줍게 고개를 떨군 들꽃이 눈에 들어오면 영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 혹여 옷깃 바람에 꽃잎이 떨어지거나 앓을까 혹여 발을 잘 못 디디려 흩어 떨어내려가거나 앓을까 조심 조심 가까이 다가가 첫인사를 건넨다. 찰칵. 렌즈속에서나마 들꽃은 무명의 신세를 벗고 존재를 인정받는다.

지난 95년 월간문학에 ‘야간산행’을 발표함으로써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김씨는 대학 산악부 시절 야생화에 첫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7~8년 동안 산과 들을 헤집고 다니다 얼마전부터 서울 양천구 ‘행복한세상 백화점’ 4층에서 ‘돌쇠와 꽃님이’를 운영하면서 도시인들에게 야생화를 보급해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야생화가 4천5백여종 서식하고 있는데 이중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특산물이 약 1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러나 멸종 위기에 놓여 있거나 희귀한 품종이 되어 버린 야생화도 126종에 달합니다”

야생화는 크게 토종 · 원예종 · 개량종으로 나뉘는데 토종은 말그대로 들과 산에서 피고지는 꽃을, 원예종은 씨를 받아 재배한 꽃을 일컫는다. 그리고

개량종은 온도나 습도 · 바람 등 환경에 맞게 인공으로 만들어낸 꽃들을 말한다.

현재 그의 가게와 옥상에는 수백종의 야생화가 봄꽃을 피어내고 있다. 김씨는 한때 야생화를 4백 50종 넘게 갖고 있었다며 자랑한다. 들과 산으로 나가 인내력을 갖고 토종야생화로 부터 직접 씨를 받거나 알음알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야생화 재배 집을 찾아다니며 씨나 모종을 구해와 금지옥엽으로 키워온 것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토종야생화는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상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먼발치에서만 바라보아도 될 터인데 인간의 욕심은 그 선을 거역코 넘어서고 만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종에 대한 집착도 한몫 한다.

“일본이나 뉴질랜드 · 네덜란드 · 미국 · 영국 등 원예 선진국에서는 산에서 피고 지는 꽃들은 그냥 산에 놔둬니다. 만일 집에 두고 보고 싶으면 원예종이나 개량종을 구하다 기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습니까? 개량종 · 원예종은 제쳐두고 산에 나는 야생화만을 선호합니다”

야생화가 점점 희귀종으로 변화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토종 야생화만을 캐다보면 씨가 말라버리는 것은 당연지사. 그리고 문제는 일반인들





△야생화 전문점 '돌쇠와 꽃님이' 운영하는 김필봉씨

이 야생화를 아무리 잘 캔다고 해도 대부분 뿌리에 손상을 입히고 만다는 것. 만일 어찌어찌 집으로 가져온다고 해도 햇빛과 습도·통풍이 잘 맞지 않아 시들시들 거리다가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야생화는 곧 자연입니다” 김씨는 죽을지 살지도 모를 야생화를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캐어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못내 감추지 못한다.

손님중에는 “어머, 예뻐라! 이꽃 얼마예요?”라며 이름도 기르는 법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꽃을 사가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엔 아까운 생명을 죽이고 만

다고 말한다.

김씨는 “야생화를 기를 땐 주위 환경이 중요한데 초보자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전문점에서 구해와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 가령 서울은 제비꽃·민들레·패랭이, 땅끝마을은 처녀치마·개패랭이·해국, 제주도는 한라돌창포·구절초·암매 등이 적합하다. 그리고 자기스타일에 맞는 품종을 고를 수도 있다. “건망증이 심하고 게으르면 생명력이 강하고 물은 한번씩만 줘도 되는 사철패랭이를, 그저 꽃만 감상하고 싶은 사람은 장대도라지, 마치 애완동물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 기울이고 싶은 사람은 꽃이 질때 곧바로 꽃대를 잘라 주기만 하면 깔끔해지는 애기코스모스를 선택하면 좋아요”

다년간의 야생화 재배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온가족이 함께 기르는 우리 들꽃’ (컬처라인 刊)이란 책을 내기도 한 그에게 자식같은 야생화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다.

“팽의 다리예요. 줄기가 실처럼 가느다란데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아요”

김씨는 ‘팽의 다리’ 처럼 강원도 영월 ‘늪다리’를 중심으로 야생화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서울과 영월을 오가고 있다. 



- ①할미꽃 ②천남성 ③패랭이
④애기코스모스 ⑤애기별꽃
⑥하늘매발톱



고대민족문화 10권짜리 '한국민속의 세계' 발간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집대성한 '한국민속의 세계'가 전 10권(각권 6백2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나왔다.

기존에 나온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쌍벽을 이룰만한 이 책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윤사순)이 총예산 8억 원(제작비 제외)을 들여 중견학자 1백20여명과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82년부터 17년 4개월 동안 자료수집과 연구 끝에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역작이다.

이 책은 우리민속을 총 20개 부문으로 나눠 한권에 2~3개 부문씩 싣고 다시 소주제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견학자 1백20명 17년간 자료수집·연구

제1권은 생활환경·사회생활(자연환경·인문환

경·역사적 배경·신분제도·가족제도·친족제도·마을생활·경제생활·두레), 2권 의례생활·일상생활(백일 돌 생일·회갑·판례·혼례·상례·제례·생활의식·일과·훈육·일상인사·사교생활·교양생활·치장), 3권 의생활·식생활(옷치레·몸치레·봉재·금침·염색·직조·일상음식·의례음식·기호품·구황음식·궁중음식·향토음식·부엌세간), 4권 주거환경·생업기술·취미(가옥·가구·농경·수산·사냥·축산·운반·문방·노름), 5권 세시풍속·전승놀이(생산력·봄·여름·가을·겨울·윤달·아이놀이·어른놀이), 6권 민속예술·공예(음악·무용·굿놀이·가면극·인형극·목공예·도자기공예·화각공예·나전공예·지공예·자수공예·짚풀공예·매듭공예), 7권 설화·민속언어(신화·전설·민담·동화·속담·수수께끼·재담·금지어 속신·은어·욕과 욕담), 8권 민속시가·판소리(민요·동요·판소리·무가), 9권 민간신앙·

기타신앙(고대신앙·가신신앙·동신신앙·무속신앙·풍수·점복·주술·의료·귀신·도깨비), 10권 종교·색인(불교·도교·기독교·천주교·유교·신종교Ⅰ·신종교Ⅱ)등이다. 민족문화연구원장은 당초 '한국민속의 세



계'를 지난 80년경에 나온 '한국민속 대관' (전6권)을 개정·증보하는 수준으로 기획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민속백과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과 문체에 많은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민속을 소개하기 위해 각 권 말에 상세한 영문초록을 첨부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종현 홍보팀장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누군가는 반드시 자기신원의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각오로 오랜 기간 전문학자들이 문화유산의 핵심 민속문화에 매달려 일궈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1957년 설립된 한국 최대의 대학부설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빛나는 전통문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연구기관이다. 1질 60만원. (문화예술관련단체에 한해 2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02-3673-2986 ☎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장>

권용태 서울시지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이민섭 전 문화체육부장관, 권문용 강남구청장(왼쪽부터) 이재창 강남구의회위원장(권 지회장 오른쪽)등 내외빈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권용태 강남문화원장 서울시지회장 취임

강남문화원 제2대 권용태 원장 취임 및 전국문화원 연합회 서울시지회장 취임식이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강남문화원대강당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권용태 서울시지회장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권문용구청장·이수홍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재창 강남구 의회의장·이민섭 전 문화체육부장관등의 축사, '플라워싱어즈'의 동요메들리, 강남문화원 민요팀의 강남신가, 서울시지회 현판식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안진수 전국문화원 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 김현풍 강북문화원장·이영철 도봉문화원장·유재용 송파문화원장·정진원 영등포문화원장·권석주 양천문화원 부원장·이종상 마포문화원장등 문화원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권용태강남문화원장의 서울시지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밖에도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이종덕 세종문화회관 총감독·유경환 한국아동문학교육원장·한용희 동요연구회장·송병구 국민독서문화진흥회 부회장·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정홍택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장·서현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교수·구인환 서울대명예교수·안병소 서울특별시의회의원·박창수 강남구의회 행정보사 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청소년 육성정책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화·고도산업화·지식화·문화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그리고 멀티미디어 분야의 놀라운 발전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청소년을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경쟁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분야라 볼 수 있는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오늘의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른들이 준비한 활동”에 대해서 보다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청소년들이 실천하는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비록 성장과정에 있으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욕구와 희망이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집행과 수립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장려하며,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하고 책임의식을 가진 경쟁력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의 준비, 국제감각 등 '21세기 청소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생산자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문화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김 두 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

보급, 청소년 문화활동 캠프, 청소년어울마당,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청소년의 정보능력과 정보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보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사이버문화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청소년 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직업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다. 특히 2001년이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의 해”임을 계기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서울과 6개의 광역시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했던 청소년 직업체험활동을 2001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다. 국제감각의 고양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년에는 교류대상국을 12개국에서 14개국으로 늘리고 교류인원도 500여 명으로 확대하고, ‘한·아세안 청소년교류’ 활동도 전개하며, 세계청소년문화축제(Youth Festival 2001)를 10월에 개최하고,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취업·관광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청소년 활동의 4대 요소인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활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전문화·특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생활권에 문화·정보·휴식공간을 복합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폭 확충하고, 2001년 6월 말 준공 예정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활동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 연수, 청소년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청소년수련시설·단체간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환 등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원·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공립 청소년수련시설도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 건립하여 나가며, 기존 청소년시설도 지역여건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화·특성화해 나간다. 또한 청소년단체의 운영을 자율화·특성화하여 청소년 단체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자도 전문영역별로 양성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넷째, 가정과 지역사회를 청소년육성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한다.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중앙 및 지역단위별로 확대 실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 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약화된 청소년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안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 지원해주기 위해 일상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눈 높이상담, 또래상담, 찾아가는 상담, 사이버상담 등 다양한 청소년상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무직·근로·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부방을 개설 운영하고,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과 문예행사를 개최하며, 공단·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순회연극공연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출청소년 쉼터를 확대 운영하며, One-Stop 텔레서비스망(1588-0924)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상에서 청소년정책 방향을 살펴보았으나, 결국 청소년의 건전 성장은 청소년 자신의 노력과 가정·학교·사회가 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며, 국가는 청소년들이 개성과 창의력,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문**

청소년 문화 이대로 좋은가?

프랑스의 문화부장관으로 10년간 재직한바 있는 앙드레 말로는 ‘정부가 한 나라의 예술적 생활을 건전한 방식으로 지도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프랑크 엘가르의 질문에 “정부는 예술을 지도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술에 봉사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문화란 국가의 하향식 지도편달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명쾌하게 밝혀준 탁견이라 하겠다.

‘청소년문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이 글의 제목은 청소년문화는 현재 건전하지 못한 것 같으니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글일 것이라는 느낌을 다분히 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역시 앙드레 말로의 답변처럼 “성인들은 청소년문화를 지도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다.

청소년문화가 문제투성이의 문화인 것으로 부각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 중 최근 들어 언론 매체를 장식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들은 특히 두려움에 가까운 우려를 성인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살 사이트’ ‘엽기 사이트’ ‘음란 사이트’ ‘폭탄제조 사이트’ 접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이트 이름들에 성인들은 우선 경악하고, 그러한 사이트들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는 데 뭔가 조치를 취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가 성인들이 ‘이렇게 하라 혹은 저렇게 하라’라는 하향식의 지도편달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가꾸어 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익명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닌 가상공간에서 하향식의 지도는 목적인 바의 실효성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다. 면대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실공간과는 달리 누가 누구인지, 누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지 어린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는 공간인 가상공간은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이다. 그 속에서 성인에 의한 청소년 지도



김 영 수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전 문화체육부장관

는 이미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들은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형성을 위해 무엇인가를 지도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봉사하여야 한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공간이 바로 가상공간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문화에 대해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에서는 문화에 대한 상품성을 강조하여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창조되기를 원하고, 한편에서는 '우리것이 좋은 것이야'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사고는 문화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고 하는 명제를 풀어가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자고 외치면서도 한 편에서는 우리 것을 잃어가는데 대한 두려움의 목소리를 높인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다양한 실험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문화의 창조는 어느 한 순간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다양한 시도를 거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가지의 실험을 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가면서 머리도 노랗게 물들여보고, 이상한 복장도 해보곤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가상공간은 익명성때문에 남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갖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천혜의 공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상공간속에 비쳐진 청소년의 문화는 성인들의 눈에는 문제 투성이의 문화일 수 밖에 없다.

문제 투성이의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들은 현실공간에서 사용하는 해법을 가상공간의 청소년들에게 이용하려 한다. '하지 말라'는 금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상공간에서는 전혀 먹혀들여가지 않는다. 가상공간의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해 보아라'의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곳 저곳 다니며 남의 자료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해킹해 보아라'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해킹을 시도하는 가운데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청소년들이 개발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대해 한 편에서는 해킹이라는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 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사고가 가상공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표면화되는 좋은 예이다.

문화에 대한 이중적 사고 속에서 성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한 가운데 많은 것을 실험해 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수 있는 청소년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거는 기대이다. 이러한 기대에 대한 성인들의 노력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시작되기 보다는 가정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은 가정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더 더욱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중간보고서에서 "교육이라는 최초 水源의 맑은 한 방울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정교육이다"라고 함으로써 교육의 원점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일본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치관 정립이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라는 두가지의 공간속에서 생활해야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옛날의 농경사회를 지배하였던 선인들의 지혜로운 말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청소년문화에서 읽게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라는 두가지의 공간속에서 생활해야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옛날의 농경사회를 지배하였던 선인들의 지혜로운 말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청소년문화에서 읽게된다.☞

전통 관례와 현대식 성년례

편집부

관례와 계례는 4례 중의 하나로 미성숙한 미성년에서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예식의 하나다.

특히 관례는 남자의 경우에 있어 15세에서 20세에 이르면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머리에 복건·초립·탕건·사모 등의 갓(?)을 씌우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 여자의 경우도 15세가 넘으면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를 계례라 불렀다. 그러나 계례를 관례에 포함시켜 부르기도 하였다.

이같은 관례와 계례는 하나의 의식을 치름으로써 미성년에서 어엿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그에 맞는 어른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다. 그리고 관례와 계례를 치른 후에야 결혼도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정자(程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관례라는 것은 성인된 구실을 능히 할 수 있음을 격려하고 훈계도 하여 성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도리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관례를 폐하면 천하에 성인이 없게 된다. 이미 관례를 치르면 당사자 자신도 중책을 맡은 성인임을 자각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관례가 없다면 평생동안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니 한갓 관례의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또 병나라 때 편찬된 ‘주자가례’에는 “남자는 15세부터 20세 사이에 관례를 치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계례의 의식이 언제부터 행해지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중국 ‘주자가례’에 관례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이같은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의 예교가 전해옴에 따라 관례가 전래된 듯하며 고려말 ‘주자가례’가 전해져 그 기초가 마련되었고 조선조 초기 왕후 귀족은 물론 양반사회에서 널리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관례의 절차는 예의에 밝고 덕성이 높은 사람을 주례자로 초청해 삼가례(三加禮)를 행한다. 삼가례가 끝나면 초례라하여 술을 내리는 의식이 진행되고 주례자가 관례자에게 자(字)를 지어주는 가자례(加字禮)가 있게 되고 관례를 치른 사람이 주례자와 웃어른께 인사를 하고 사당에 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계례는 15세 이상 성인이 된 여자에게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족두리를 얹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이다.

원래 관례는 그 연령이 15세에서 20세 사이로서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서 어느정도 성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때였으나 조선조 중엽이후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혼인연령이 빨라져 관례 시행연령도 앞당겨져 10세전후에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점차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은채 그냥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이 생겼는데 이로부터 ‘초립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성년례는 현대적 관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음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의식인 것이다. 성년례는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제1회 성년의 날 행사를 실시

한 것이 효시이다. 그러나 1975년 4월 28일(대통령령 제7608호)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함으로써 이에 일치시켜 5월 6일로 변경 시행하다가 1985년(대통령령 제11515호)부터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5월 21일이 성년의 날이다.

정부가 성년의 날을 법으로 정하고 성년례를 거행토록 한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일깨워 주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발전과 명량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현재 성년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행위는 재산권의 행사(민법제4조), 약혼과 결혼의 자유(민법제800조), 각종 선거권(헌법제23조), 정당의 당원자격(정당법제17조) 등이 있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자율적 권리도 가진다.

한편 성인이 되면 의무도 따르게 마련인데 첫째 국방에 대한 의무(병역의무)가 있고 부모의 도움에서 벗어나 자립·자생해야 할 의무, 사회생활에서 자기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성년례는 대개 학교나 사회단체, 문화단체 등에 의해 합동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근래에 와서 성년례가 유명무실화 돼가는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가 전통의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사회로 급변하면서 부모가 한둘밖에 없는 자식을 광잉보호하는 풍조가 원인이다.

자식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보호막을 꿋고 어른 대접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하여 성년이 되는 자는 무기력에서 벗어남은 물론 자신감을 갖게하고 자립심도 길러야 한다.

“남녀 모두 성년이 되는 나이가 되면 본받고 존경할 만한 학문과 덕망을 갖춘 어른을 모시고 그 집

례하에 성년례를 거행함으로써 성년이 되는 남녀 모두에게 성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 어엿한 사회인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은 사는 동안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지만 성년이 되기전에는 많은 법률적 제한을 받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년이 됨으로써 한 몫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함과 아울러 신성한 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성년례는 관례와 마찬가지로 주례자를 모시고 집사에 의해 진행되는데 성년자는 정장차림(한복·양복)을 한다.

성년례에서는 결혼례식에서 신랑과 신부의 선서를 받듯이 성년선서를 받는 것이 좋다. 사단법인 한국전례원이 발간한 ‘가정의례 규범집’에 있는 성년선서 서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년선서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한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어른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성년자 ○○○ 인

성년선서는 본인이 주례자 앞에서 낭독하고 성명하게 하여 집에서 간직하게 한다.

※ 이 글은 전통의례실천운동본부가 펴낸 「한국의 전통예절」, 민족문화사가 펴낸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단법인 한국전례원에서 펴낸 「가정의례 규범집」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문**

선·교종 합일에 힘쓴 보조국사 지눌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 1158~1210)은 중국불교에서 한국인의 근기(根基)에 맞게 독자적으로 체계를 세운, 한국불교 사상사에서 위로는 대각국사와 아래로는 태고국사와 더불어 가장 빛나는 업적과 영향을 끼친 분이다.

불교는 왕건이 고려의 개국과 함께 국교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후원과 기대로 귀족화되었으며, 스님들은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서 있었다. 불교계 모두가 시대에 편승해 안위를 택했지만 지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정혜결사(定慧結社) 운동을 벌인다. 지금의 조계산 송광사에 정혜사(후에 수선사)를 정한 후, 민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철저한 수행과 수도로서 포교에 힘쓰면서 정치·권력·안락을 과감히 버렸다.

정혜사에 지눌의 수행과 수도력으로 민중이 대거 몰리자 자신의 수행에 본분을 잊을까를 걱정하며, 홀연히 몸에 지닌 가사 1벌만을 가지고 산속에서 뼈를 깎는 고행을 했다. 보조국사는 스승을 정하지 않고 홀로 수행을 하며 도를 찾았으며, 자유롭게 경론과 선어록에 깊이 빠져 독자적인 선사상의 체계를 세웠으며, 귀족과 민중의 차별을 버리고 평등포교를 강조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보조국사는 3번 크게 깨우침을 얻었는데, 첫째 ‘육조단경(六祖壇經)’을 보고 한가지 상에 매달리지 말고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둘째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의 ‘화엄경(華嚴經)’ ‘여래출현품’에 선과 교가 다르지 않음에 감격하여 수행법의 체계를 세우고 불교계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셋째 ‘대혜어록’을 보고 자아의 본질도 일체의 경계와 작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걸림없이 자재(自在)한 대혜탈의 경계를 체득했다.

보조국사의 선사상의 핵심은 ① 심성론, ② 돈오점수론, ③ 간화론으로 꼽고 있으며, 심성론(心性論)은 선에서 심(心)과 성(性)을 내세워 불교의 기본정신을 일깨웠다. 저서 ‘진심직설(眞心直說)’을 저술하고 선이 추구하



는 실제 세계인 진심(眞心)과 망심(妄心), 진심의 묘용(妙用)에 대해 정확히 결론을 내었으며, 진정선은 교가 바탕이 됨을 당부하고 선(禪)과 교(敎)가 다름없음을 간절히 당부했다.

돈오점수론(頓悟漸修論)은 참자아와 참마음을 홀연히 발견하는(돈오)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처음에는(태어남)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 차츰 발견하는 것(점수)을 분리하지 않고 점수가 바탕이 되어 돈오가 눈을 뜬다면 그것이 바른 수행이라고 하였다. 간화론(看話論)에 대해서도 모든 분별심, 즉 사랑(思量)없는 마음으로 한 생각 탁— 끊고 살아간다면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참 진리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보조국사는 총 15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했으며, 수행과 이생(利生)에 전념할 혁신적 이념체계를 창안해 새로운 기치를 세움으로써 한국 불교를 조계종(曹溪宗)이라는 큰 강으로 합류시켰다.

보조국사는 세수 53세(희종 6년, 1210년) 3월 27일 새벽, 법랍 36세에 석장(錫杖)을 짊고 평상에 앉으신 채 조용히 입적했다.☞



강원도서 첫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열려

강민철 (월간 우리문화 기자 · mckang@kccf.or.kr)

‘2001, 지역문화의 해’ 10대 기획사업 중의 하나인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9개 개최예정 도(道) 중 첫번째로 강원도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강원도·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이중한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이종인 상임추진위원, 안진수·이원태·김상수씨 등 추진위원, 문화관광부 노태섭 예술국장·이세섭 전통지역문화과장·안선국 전통지역문화과 사무관·김동욱 전통지역문화과 주사 등이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을 듣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강원도 행사는 원주·고성·강릉 등

3개 시·군을 중심으로 각각 영서·영북·영동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지자체 문화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써 현장감 높은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서 내려간 추진위원단과 행정 담당자들은 주제발표나 토론회에서 지역 문화의 현안과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을 들을 뿐 가급적 발표나 제안을 자제함으로써 중앙이 아닌 지역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인 27일에는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씨를 초청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연 데 이어 이원태 추진위원의 사회로 최석규 춘천국제마임축제위원회 사무국장·김주완 미협 원주지



△ 강릉에서 열린 '강원 영동지역 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 고성에서 열린 강원 영북지역 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 원주에서 열린 강원 영서지역 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부장·전상기 홍천군 예총 부회장·이영식 횡성문화원 향토사료조사위원·엄태성 前영월 공기초등학교 교장·정주신 철원문화회 회원·장석범 비목문화제 조직위원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튿날에는 고성 여성회관에서 서연호 고려대 교수와 아오야마 마사토 CK플래닝 대표이사의 초청 강연에 이어 장소를 전통가옥보존지구인 오봉마을로 옮겨 한옥으로 된 마을회관에서 김상수 추진위원의 사회로 한정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김경화 양구문화원 사무국장·최병현 인제문화원 부원장·최형기 고성군문화원 사무국장·고경재 양양문화원장 등이 주제발표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오봉마을을 둘러보며 전통가옥의 보존 실태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마지막날에는 강릉문화원에서 오전에 이원태 추진위원의 사회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오제 관련 컨설팅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안진수 추진위원의 사회로 김천영 강릉대 교수·이성연 예총 동

‘서연호 교수의 강연 요지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민요와 춤 개발해야

우선 고성문화회관은 연간 개관일수가 131일로 상당하지만 대부분 1회성에 행사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두 개의 도서관 역시 전문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야 한다. 명태축제 역시 새롭게 요리법을 개발해 맛자랑 축제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 지역 고전춤 역시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함께 출 수 있는 춤으로 현대화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단체들은 NGO(비정부기구) 보다 NPO(비이익단체) 개념에 입각해 지역사회 봉사과 복진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고성은 설악권과 합쳐서 북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있다. 관광객들이 오고갈 때 들러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민요와 춤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도 향유하며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는 가칭 문화·판매센터가 절실하다.

서연호 고려대 교수▷



해지부 사무국장·김태수 삼척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김강산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태백)·우강호 평창군의회 의원·고종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정선) 등이 주제 발표했다.

한편 '지역문화현장 탐방및 대화' 두 번째 행사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충청남도에서 개최됐다. 자세한 내용은 6월호에 게재 예정 **☞**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 강연 요지

‘균형’ 잃으면 생명력도 없어... 소외는 곧 자기시간 얻는 것

창작가는 오만해도 게을러도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이 세상 무엇도 하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게 모순에 의해서 이뤄진다. 남녀, 지구의 원심력과 구심력, 슬픔과 행복 등이 다 그렇다. 양쪽의 힘이 버티 있어야 존재한다. 모순은 창과 방패다. 이런 모순이야말로 존재를 이루는 힘이다. 작가가 균형을 찾으려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선 안된다. 당연히 자기에 대한 비판도 뒤따라야 한다. 이같은 균형은 곧 생명이다. 하나의 작품이 균형을 잃으면 생명력은 없게 된다. 오늘 이곳에선 지역문화현장 탐방및 대화 시간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어느 지역 작가’ 혹은 ‘어느 지역 화가’ 하는 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지역의 작가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작가인 동시에 세계 인류의 작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소외’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 사실 지역이라는 게 특색도 있지만 소외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된다. 오히려 소외받거나 고독하다는 것은 바깥 말하면 자기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는 서울에서도 원주에서도 일부러 격리되어 살아왔다. 풀을 뽑을 때도 혼자서 뽑는다. 둘이 하면 사고를 못한다. 혼자 뽑아야 사

고를 하고 창작할 수 있다. 주위로부터 거만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16권의 토지를 못 썼을 것이다. 우리는 신이 없다, 혹은 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모순의 틈 사이로 평생을 살아간다. 원래 문명이라는 것은 문화의 지시를 받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영혼이 문제다. 농부가 고된 노동을 하다 점심으로 먹는 보리밥이 맛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박경리씨(75)는 69년부터 ‘토지’를 쓰기 시작해 25년만인 94년 드디어 5부 16권에 이르는 대작을 완성했다. 현재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명평등사상을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작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토지’ 말고도 ‘흑흑백백’을 비롯 ‘불신시대’,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쟁’ 등의 작품을 썼다.

‘토지’의 작가 ▷
박경리



아오야마 마사토 CK 플래닝 대표이사의 강연 요지

유명상품 DB로 구축해야... 대외 홍보 활동도 절실

사이다마현 카와고에시는 가로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2백50만명에서 3백70만명으로 증가했다. 옛 상인문화를 나타내는 '쿠라츠쿠리'와 같은 고건축물을 현대적으로 개조해 새로운 거리 만들기에 성공했다. 이런 성공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현지주민과 개발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각각의 잠재능력을 향상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개인적으로 문화 개발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백화점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했으나 운영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유명한 것을 정리해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머리에만 있으면 소용 없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서울 부산 제주도를 제외하곤 어디

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한다. 점포를 세우고 책으로 만들어 관광회사에 보내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아오야마 마사토
CK 플래닝
대표이사 ▶



발제요지

축제는 누구를 위하여 열리나?

관광객을 위해? 아니면 지역민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무형문화재 전승 노력 뒤따라야

▲최석규(춘천국제마임축제위원회 사무국장)춘천 인형극제와 마임축제가 재생산의 기반을 갖지 못하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마임의 집도 재정적인 문제로 문을 닫은 상태다. 특히 무엇보다 지역문화예술 행정 및 경영전문가의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문화예술 생산자 집단과 문화예술 행정·경영의 전문가 집단,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시정, 그리고 수용자이며 창조자인 지역민간의 소통구조가 절실하다.

▲김주완(미협 원주지부장)지역을 지키며 예술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작 보조금 등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

은 폐지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모와 수혜의 폭을 더욱 더 늘려야 한다. 또 지자체 문화예술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것도 소통을 장애하는 요인이다.

▲전상기(홍천군 예총부회장)한서문화제는 관과 민의 절충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내용도 타지역과 유사하다. 인기연예인 초청, 이름있는 고적대 초청, 불꽃놀이 등 볼거리를 위한 예산 비중이 커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한다. 문화축제에 내용을 소득상품의 부재도 문제다. 다양한 무궁화 분재를 상품화하거나 오래된 대형 무궁화를 기념물로 보호하는 기념공원을 축제장소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한 무궁화의 고장으로 특성화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영식(횡성문화원 향토사료조사위원)묘를 다질 때 부르는 회다지소리는 선소리꾼 1명에 대해서만 기능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을 뿐 '받는 소리'를 하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회다지 소리의 전승도 문제다. 인근 대학의 학생들에게 회다지소리 동아리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엄태성(前 영월 공기초등학교 교장)행사에 중점을 둔 문화활동은 자제돼야 한다. 실질적인 문화적 체험과 관련 있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지나친 문화산업 중심의 문화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중들이 문화산업의 객체, 문화상품의 소비자, 문화생산자가 아닌 순수한 수용자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정주신(철원문화회 회원)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상허 이태준 선생은 월북 작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고향 철원에서조차 외면받아 왔다. 지난 95년 방치된 이태준 생가터를 찾아 표지판을 세울 때만 해도 작전을 하듯 몰래 들어가 세우고 돌아와야 했다. 이제 남북관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도민의 힘으로 상허 이태준 기념사업회를 설립해야 한다.

▲장석범(비목문화제 조직위원)우리 국민의 애창곡인 '비목'의 발생지인 백암산 기슭에 비목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96년부터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루려는 국민적 마음가짐을 결집하기 위해 비목문화제를 개최하게 됐다. 설문조사결과 인상에 남는 행사로는 공연행사, 주먹밥먹기, 비목깎기, 두드락·전통줄타기 등을, 비목문화제에 걸맞지 않는 행사로는 DDR경연, 즉석노래자랑, 도자기빚기 순으로 응답했다. 4일간의 행사기간도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든다.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외지인이 거의 없는 데다 주민들마저 외면하는 문화행사는 예산만 축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 전문 문화행정가의 확보가 시급한 것도 이런 이유다. 문화공간도 부족하다. 행사는 문어발식으로 많은

데 비해 공연시설이라고는 회관 건물 1동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문화단체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시급하다.

▲김경화(양구문화원 사무국장)5월에 박수근 화백의 미술관을 착공한다. 캐나다 교포와 현대갤러리 박명자 관장 등이 진품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박수근 화백은 우리 도민의 자긍심과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게 한 원천이 된다.

▲최병현(인제문화원 부원장)공연을 보더라도 박수를 언제 쳐야할지 모른다. 서예가에게는 청첩장 써달라고, 문장가에게는 진정서 써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악기 이름조차 모른다. 이것이 지역 현실이다. 수학여행제도를 단순히 명승고적지를 도는 것에서 탈피해 반드시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1개소 이상 관람케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최형기(고성문화원 사무국장)동시다발성 행사는 문제가 있다. 계속적으로 관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협의회를 통해 축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시군 단위 문화예술기금 조성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기업 메세나 협의회 운영제도 활용 및 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해 관과 민이 일정목표액을 설정해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경재(양양문화원 원장)물론 사업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지원금 격차가 너무 크다. 또 외래문화가 들어온다 해도 배척만 할 게 아니라 조화롭게 받아들이며 지역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 중앙에서 내보낸 대규모 공연은 지역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지역에 맞는 소규모 공연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천영(강릉대학교 교수)단오제는 훌륭한 문화의 원석으로 그것을 가공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성연(예총 동해지부 사무국장)지역문화예술과 관광의 접목이 절실하며 지역간 경쟁구도도 탈피해야 한다.

▲김태수(삼척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죽서문화제



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실무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이 문제다. 또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창조력과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인드가 부족하다.

▲김강산(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태백은 성역문화·화전농경문화·도참문화·광산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우강호(평창군의회 의원)여행사들이 강원도에 상설공연장 하나만 있어도 관광객을 머무르게 할 프

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이버 세계 속의 강원도와 촌놈으로서의 강원도를 같이 보여줘야 한다.

▲고종현(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찾아오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준비하는 지역민들이 자족할 수 있는 행사로 되돌아가야 한다.☞

강릉단오제 컨설팅 요지

“강릉단오제 상근직원 배치해달라” 보조금·현대화등 밀도있는 논의

‘2001, 지역문화의 해’는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릉문화원 3층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4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단오제에 관한 컨설팅을 벌였다. 이원태 추진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컨설팅은 이중한 추진위원장·강준혁 추진위원·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규원 박사 등이 컨설턴트로 나와 참가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합석중 강릉대 교수는 “21세기는 세계화시대로 외국인들이 축제를 관람하러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강릉단오제를 관광상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참가자는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축제 때 반짝 모여 기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단오제조직위원회에 상근직원을 근무시키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전통무형문화재의 경우 젊은층들이 전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참가자는 축제를 현대화하는 등 젊은층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컨설턴트로 나온 강준혁 추진위원은 “교육부나 도교육청과 협의해 특별활동시간에 축제참관을 의무화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전통문화를 배우고 자

라게 되어 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이면 행사 축제의 기획이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현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전통문화 전수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해 “전통문화 전수는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컨설턴트로 나온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규원 박사는 “주민 참여는 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유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축제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적절한 행사공간을 찾아 이전시킬 수 있으며 퍼레이드형 프로그램을 1일 단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청소년과 지역민들이 직접 만든 **지역문화 영상물**을 공모합니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중한)는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기 삶의 터전을 소재로 동영상에 담은 영상물을 오는 4월 18일부터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영상세대인 젊은 층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확산과 창조적 역량을 키우고, 지역민들의 자기 고장문화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세대 지역문화 카메라 출동!>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두 분야로 나누어 공모한다.

푸르른 세대들이 각 지역의 문화를 직접 영상 스케치하는 ‘영상세대 지역문화 카메라 출동!’

공모자격은 만13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푸르른 영상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중고등부 연령층과 대학생 연령층 부문으로 구분 공모한다. 예선에서 총 40편을 1차 심의하여 소정의 제작실비를 지원하고, 예선 입선자들이 동 지원비로 제작 출품한 본선작을 최종심사,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금 최고 200만 원) 1편 등 4편을 선정한다.

예선 공모기간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예선 심사발표는 9월 15일에 한다. 내용은 젊은이들이 직접 동영상 카메라를 둘러매고 전국 각 지역의 문화재 및 풍습, 지역축제 등 지역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취재, 영상화하는 것으로 특히, 오는 11월 15일 본선작 심사는 인터넷에 상영하여 네티즌들의 투표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영상공모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각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 지역문화예술의 특성과 주민자치 활동, 내 고장 자랑거리 등을 촬영·영상화하는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 범위에서 향토색 짙은 아가자기한 소재와 대상을 구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금 250만원) 등 당선작 16편은 오는 11월 15일 심사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함께 공유하는 맛깔스럽고 토속적인 지역문화의 향기

또한 시상작품 총 26편은 ‘2001,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 등 관련 인터넷에 상영하여 네티즌들과 지역문화활동가들이 앉은 자리에서 전국 각 지역의 정서와 체취를 담은 생생한 지역문화를 보고 함께 공유하며 발전적인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영상인력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고 담아낸 영상작품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기획을 해나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작품은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서울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에서 접수하며 기타 상세한 공모안내는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www.region2001.org)에 게시한다.☎



「지역문화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선정 결과

지 역	프 로 그 램 명	지 역	프 로 그 램 명
서울 영등포	단오한마당축제	충남 서산	고서 및 간행물 전시회
서울 은평	매바위축제	충남 연기	연기대첩제
서울 중랑구	봉화산도당제	충남 부여	임천충혼대제
대전 중구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충남 아산	솔뫼축제
대전 서구	갑천수신제	전북 익산	주당방아찢기
인천 중구	경기민요 전승보존 발표공연	전북 무주	방앗거리놀이제
인천 남구	우리고장문화축제 탐방 및 역사 고찰	전북 순창	금파농요 공연
인천 부평구	동수축제	전북 임실	임실평봉농악 발표회
인천 남동구	소래풍어제	전북 김제	전통민속행사
인천 남구	서해안 풍어제	전북 남원	남원삼동굿놀이
울산 남구	풍물놀이 한마당	전북 부안	줄포수박축제
경기 광명	학은동 풍년기원제	전북 장수	한여름도깨비축제
경기 여주	명성황후 송모제전	전남 강진	갯마을축제 발굴 연구
강원 횡성	전국회다지리 경연대회	전남 신안	강강술래 시연
강원 삼척	내미로천제 및 산메기	전남 고흥	곰머리 벽구놀이
충북 충주	전국사진촬영대회 및 전시회	전남 나주	마을지신당제
충북 충주	전통무예발표	전남 구례	구례웃놀이대회
충북 충주	충주문인도서전시회	경북 성주	우리배구렁이 금수전시회
충북 괴산	우리밀알기 축제	경북 김천	김천줄다리기
충북 제천	한버들해바라기축제	경북 경주	외국인근로자 유적답사
충북 청원	쌀안축제	경남 양산	웅상농청장원놀이
충북 보은	당골개상제	경남 진해	연도여자상여소리
충북 음성	음성거북놀이 전승재현	경남 산청	생초문화마을 풀오름민속경연
충북 제천	월악산신제	경남 하동	장승축제
충남 홍성	청소년 동아리 홍주문화역사 현장탐방 교육	경남 남해	남해군 설천면 덕신줄다리기
충남 논산	강경전통맛깔짓축제	경남 거제	굴까로 가세 발표 및 경연
충남 논산	연산백중놀이	경남 거창	전통상여의식 재현
충남 청양	칠갑산장승문화축제	경남 하동	하동노래발표회
충남 당진	남이홍장군 문화제	경남 하동	은행나무축제
전북 고창	고창판소리공연	경남 남해	홍헌전복축제
충남 청양	청소년 건전가요 부르기	경남 마산	진동불꽃낙화축제
충남 천안	단오축제	경남 고성	장승한마당
		경남 합천	오광대밤마리 탈장승축제

*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은 5월 15일까지 하반기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취임

예술국장에 김장실 전 공보관·전통지역문화과장에 최천식 전 현대미술관 섭외교육과장

편집부

문화관광부 차관에 윤형규 전 주오사카 총영사가 취임했다. 또 지방 문화원 사업을 관장하는 예술국장에는 김장실 문화관광부 전 공보관이, 전통지역문화과장에는 최천식 전 현대미술관 섭외교육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에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취임한 윤형규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정치학과를 나온 후 일본와세다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미국 커네티컷대학원을 수료했다. 79년 문공부 홍보조정실 보도담당관으로 출발해 주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주 일본대사관 문화관보·해외공보관 외보분석관·주일본대사관 공사·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언론 특보·제15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또 김장실 예술국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남공고·영남대 행정학과를 나온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89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미국 하와이대로 유학해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줄곧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문화관광부 공보관·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중앙공무원 고위정책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사무관으로 문화원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최천식 전통지역문화과장은 고대행정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99년 종무실 종무총괄과·감사담당관실 근무에 이어 청소년국 청소년지원과장·국립현대미술관 섭외교육과장을 거쳐 이번에 다시 전통지역문화과장으로 부임하는 등 문화원과의 인연이 깊다.

한편 김순규 전 문화관광부차관은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으며 노태섭 전 예술국장은 문화재청장으로 승진 전보 발령을 받았다. 또 전국의 지방문화원사업을 관장해온 이세섭 전 전통지역문화과장은 문화관광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



윤형규 차관



김장실 예술국장



최천식 전통지역문화과장

안섬풍어제

당진문화원 제공

당진군 송악면 내도리 주민들이 모여 오색의 뱃기를 들고 한해 동안의 풍어와 무사태평을 빌며 질병과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는데 마을의 최대 행사이다.

안섬 당제의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전 마을 앞산(堂山)에 당집을 지어 놓고 매년 정월 첫 진사일 일몰과 동시에 당제를 지냈다. 제당(祭堂)은 섬의 동북방 돌출한 당산 정상에 3칸 정도의 초가이다. 당안에는 제수를 진설하는 제단을 벽에 대어 설치하고 그 위에 세겹으로 짚은 한지를 3개소에 달아 놓았다. 제당에 모신 신은 산신, 용왕신, 서낭신의 3신이고 주신은 물과 바다를 주관하는 용왕신으로 뱀을 뜻하며 진대 할아버지라고도 부른다. 섬마을 생계는 어업에 있으니만큼 일터가 바다요 바다는 어민의 보고이다. 그러나 어업은 농업과 달리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출어시 폭풍우 등의 자연재해를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위대한 초인적인 힘을 빌려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로 갈수록 더욱 간절하여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축제가 시작되었다.

당제는 매년 음력 정월에 지내는데, 준비는 전년도 동지달 그믐날(11월 말일) 당주(堂主)택에서 회의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당제일을 정하는데 제일은 정월 초진일(初辰日)로 정한다. 그리고 제관(祭官)을 뽑는데 제관은 당주, 주감, 당회장 등이 있다. 당주는 당제 전반에 걸친 총책임자로 마을의 원로로 정하며, 주감은 당제의 준비와 제의(祭儀) 진

행등 전반의 것을 감독 총괄한다. 회장은 잡역을 맡은 사람으로 3~4명을 뽑는데 당주, 주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임이 된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과 수금 방법을 정한다. 당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총경비를 설정하고 동민 전체에 분담하여 거출한다. 선주에게는 배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출하고 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률적으로 거출한다. 경비는 쌀과 돈으로 걷는데 쌀을 걷는 사람을 '쌀주' 돈을 걷는 사람을 '돈주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도 회의 때 선정한다.

그리고 금기(禁忌)사항을 철저히 지킨다. 신성한 제전을 온 동민이 정성을 다하여 성스럽게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며 관습의 금기 사항으로는 첫째 선달 그믐날부터 당집과 당주집 문앞에는 원새끼줄에 한지를 끼워서 금줄을 매달아 놓고 또한 황토 흙을 깔아 악귀(惡鬼)나 부정(不淨)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부정한 사람이란 사람이 죽었거나 아기를 낳은 집 또한 그 집에 출입한 사람들을 말하며, 피(血), 부정(여자의 생리, 살상)을 가린다. 그리고 선달 그믐날부터 당제일까지는 동민 전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당의 주신이 용왕님이기 때문이다. 용은 즉 뱀이요, 뱀은 돼지와 상극임으로 돼지고기는 일절 금한다. 물론 제수(祭需)도 돼지고기는 쓰지 않는다. 특히 제관은 아무리 추운 날씨가 바닷물에 들어가 목욕하고 재계(齋戒)한다.

제물은 일반 제례행사나 별 차이가 없으나, 제주

(祭酒)는 조라술이라하여 선달 그믐날 당집 안에 빗어 넣었다가 사용하며, 소를 꼭 잡는데 소는 잡털이 없는 한우를 잡아서 쓴다. 현재는 소머리를 사서 제물로 사용한다. 그리고 여자 옷감과 바느질 용구도 올린다.

당제일이 결정되면 화랭이, 무당, 광대를 부른다. 해마다 오는 단골에게 부탁하면 단골은 각지방에 연락하여 제일(祭日) 전날 10여 명의 화랭이들이 당주집으로 모두 모인다. 무당은 당주집에서 굿을 한석(한거리)하고 그곳에서 잔다. 선주들은 자기 뱃기를 당주택으로 갖다가 한자리에 꽂아둔다.

이상과 같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당제 행사는 당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각 선주들은 당주택에 꽂아 두었던 기를 큰배 순서대로 들고 제당으로 올라 가는데 이때 무당, 화랭이들도 풍악을 울리며 올라 간다. 당에 오르는 기는 당집 앞 추녀에 바짝 기대어 꽂아 둔다. 기를 꽂고 나면 선주들은 차례로 들어가 재배를 하고 무당들은 굿을 하는데 부정풀이 굿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년 열두달 마을 전체의 무사태평과 무병장수 그리고 운수대통의 축원을 하며, “얕은 자리는 복 자리 선자리는 벼슬 자리되게 하고 짧은 명을 길게 하고 긴명은 더 길게 해달라”는 축원을 한다. 또한 당제때는 마을공동의 축원과 개인제도(개인적인 소망을 기원하는 祭)도 병행되는데 개인별로 무병장수와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소지(燒紙)를 한다. 소지가 잘 타올라야 소원대로 된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소지를 한다.

밤이 깊어 가면서 열두거리 굿이 진행되는데 굿을 할 때는 화랭이들도 같이 풍악을 울리며 선주들에게 조라술을 권한다. 이때 선주들은 돈을 쓰게 되며, 굿판이 흥취가 날 때 쪼이면, 동민들도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밤샘을 한다. 날이 밝아 동녘 하늘에 새아침의 햇살이 솟을 때쯤 되면, 굿도 끝이 나게 되고 다음 행사 준비에 바쁘다. 둘째날은 뱃고



△당집앞에 세워 놓은 뱃기

사와 거리굿, 샘굿 등으로 이어진다. 뱃고사는 당제를 지냈던 재물(제수용품)을 선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선주들은 뱃기와 함께 각각 무사고를 비는 뱃고사를 지내게 된다.

망망대해에 일엽편주가 출어하는 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선원 전체는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사고없이 만선을 기원하는 축원과 함께 선주로부터 뱃동서 모두가 재배를 올린다. 점심때가 되면 뱃고사도 끝나게 되고 샘굿과 거리굿, 장승제가 시작된다. 인간생활에서 식수를 공급해 주는 우물은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더구나 육지가 아닌 섬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냇물 연못이 없는 작은 섬마을에서는 일체의 민물(淡水) 공급은 오직 우물뿐이기에 대동샘굿은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화랭이 광대들도 동민들과 혼연 일체가 되어 온갖 재주를 부리며 먹고 즐겼다.

샘굿이 끝나면 거리제를 지낸다. 이 섬의 중앙 사거리에서 제를 지낸 다음 장승제를 지내는데, 장승은 목장승이며, 남장승 몸통에는 동방청제대장군(東方靑帝大將軍)이라 쓰여져 있고, 여장승 몸통에는 동방청제대장군부인(東方靑帝大將軍婦人)이라 쓰여져 있다. 장승은 마을 어귀인 유두머리와 산마루개, 강변 말쪽 세 군데에 모서 놓고 통행인을 보호하고 악질(惡疾) 악귀(惡鬼)를 몰아 내어 부락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이와 같이 당제를 끝으로 안섬 당제는 막을 내리는데 제가 끝나면 대동회를 열어 결산을 보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어 가면서, 동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 

민화 응용 쿠션과 핸드폰 주머니 만드는 오영미씨

액자속 민화를 핸드폰주머니에, 쿠션에, 스커프에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2년 1남을 둔 주부 오영미씨(41)는 요즘 새로운 재미에 푹 빠져있다. 애들 학교 다 보낸 다음 혼자 방안에 앉아 붓을 잡고 십장생·까치호랑이·미인도등 각종 민화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붓질을 하노라면 또 하나의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듯 하고 가슴밀바닥에서는 뭔지 모를 편안함과 행복감이 밀물져 온다.

그러나 오영미씨는 여느 민화 작가와 다르게 하나 있다. 보통 작가들이 민화 그리기 자체에 만족하는데 반해 오씨는 실생활용품에 민화를 집목시키고 있다는 것.

지난해는 서울시문화상품전에 십이지신상을 그려넣은 핸드폰주머니와, 해태와 18세기 민화에 나오는 닭을 각각 그려넣은 쿠션을 출품해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광목을 이용해 주머니를 만들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천을 덧댄 다음 쥐·범·양등 십이지신상을 그려넣었어요”

광목도 원래 아이보리색 그대로의 광목과 함께 청색을 염색한 광목등 두가지를 이용했다. 아이보리색 광목은 수공예품다운 담백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청색 광목은 10~20대가 좋아할만한 캐주얼한 느낌이 든다. 수백년 혹은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적 상징물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세대의 생활

용품에 되살려 생명을 불어넣은 것.

“민화는 액자나 병풍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안이나 거실등 실생활에 가까이 있으면서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오랜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는 오씨는 뜻밖에도 “피카츄나 디지몽등 외국의 캐릭터에 길들여진 10대들이 우리의 민화를 접하자 그 어느 것 못지 않게 좋



△ 민화 응용 쿠션과 핸드폰 주머니 만드는 오영미씨

아하는데에 놀랐다”며 한토막의 경험담을 꺼냈다.

‘민화’ 상품 만들기 초등학생들도 매우 좋아해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노원구 불암초등학교에 출강해 교사 재량수업 시간에 5학년을 대상으로 민화 그리기를 해오고 있는데 30여명의 학생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며 매우 신나한다는 것.

오씨는 “지난해 출품 준비를 하며 닭과 해태를 소재로 민화 쿠션을 두개 만들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딸도 누구 주지 말자고 할만큼 매우 좋아하더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초등학교에 나가며 미술 교과서를 살펴보게 됐는데 민화 비슷한 그림이 겨우 한 컷 정도 실렸을 뿐 우리나라 그림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대부분이 서양의 그림이어서 안타까웠다”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화를 가르치면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문화를 이어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씨는 앞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화선지에 민화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부채나 삼합과기·필통·액자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민화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오씨가 민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불과 1년여 전이다. 지난해 서예와 민화를 30여년째 해오고 있는 친정어머니 이순희씨가 민화작가 박순자씨를 소개하며 “한번 민화를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면서부터다. 젊은 시절 의상을 전공한 오씨는 박씨로 부터 민화를 체계적으로 배워 단기간에 수준급 실력을 갖추게 됐다.

오씨가 인터뷰 도중 박순자씨의 가르침에 감사함

을 잊지 않으며 민화에 대한 매력을 늘어놓자 옆에 있던 박순자씨가 1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제자를 대신해 민화 예찬을 늘어놓는다.

“남들은 모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민화는 문인화·산수화보다 더 어려운 분야예요. 한번 붓칠해서 끝나는게 아니거든요. 여러번 붓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화엔 깊이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멀리 있는 특정부분을 강조하기위해 원근감을 없애는 것도 가능해요”

옆에서 박씨의 설명을 듣고 있던 오씨는 “이같은 민화만의 독특한 느낌을 살려 생활용품에 접목해 나가면 멋스러움이 살아나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오씨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미인도나 궁중모란을 옷이나 스카프 등에 그려넣는 것도 생각중이라고 살짝 귀띔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가와 판로다. 예를들어 지금처럼 수공업으로 핸드폰 주머니 하나를 만들라치면 천이나 물감등 재료비말고도 4시간 정도가 꼬박 걸려 단가가 1만원대로 높아질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오씨는 조만간 자동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량생산체제를 통한 원가 인하와 함께 판매 대행자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오씨는 상품화를 목하 구상중이다. 

오영미씨가 만드는 문화상품들

쥐·범·양 등 십이지신상 핸드폰 주머니와, 해태와 닭이 그려진 쿠션. 핸드폰 주머니의 광목은 두 종류를 썼는데 아이보리색 광목은 수공예품 다운 담백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청색 광목은 10~20대가 좋아할만한 캐주얼한 느낌이 든다.





초파일 관등풍습

박 후 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4월 초파일(初八日)은 석가모니 탄신일이다. 이날을 불교에서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는데 절을 찾아가 재(齋)를 드리고 축원을 한다.

저녁에는 등석(燈夕)이라 하여 불교신도이거나 평소 관심이 많은 가정에서도 오색의 종이로 바른 등불을 밝혀 집밖에 걸어둔다.

석탄일을 기리는 불교 특유의 봉축행사의 하나인 관등하는 습속은 예전부터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성행하였다. 관등이란 말은 「대반열반경」의 “스스로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 것이며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는 부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또 관등에는 현우경(賢愚經)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의 등불」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어느 때 부처가 아세사왕의 초청으로 공양을 받으시고 설법을 하시다가 시간이 늦었다. 왕과 대신들은 부처가 가시는 길을 밝히기 위해 많은 등불을 길거리에 달았다.

이 때 사위성에 아난타라는 한 가난한 여인이 이를 알고 발심하여 부처에게 등불을 공양하고자 동전 한뼉으로 기름을 사서 등을 마련 부처가 지나는 골목을 밝히고 마음속으로 ‘보잘 것 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나도 부처가 되어지이다’라고 빌었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여인의 등불만은 환히 빛나고 있었다. 등불이 꺼

지기 전에는 부처가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아난타가 아무리 불을 끄려해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부처는 아난타에게 “아난타여 부절없이 애쓰지 말아라 그 등불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그러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아난타는 내세에서는 반드시 생불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같은 관등불사(觀燈佛事)의 유래는 가난하고 마음이 착한 한 여인의 등공양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불을 밝히는 뜻은 지혜의 광명(光明)으로 중생의 무명(無明)을 밝혀주고 아울러 부처 앞에 등불을 밝혀 불덕(佛德)을 찬양하는 것이다.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에서 ‘등을 비치는 것은 연등(燃燈)이라 하고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을 관등(觀燈)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등불이 상징하는 부처의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불국정토 건설에 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등하는 풍습은 신라시대 연등회(燃燈會)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정월대보름날 황룡사를 중심으로 한 백고좌대회(百高座大會)에서 관등행사가 크게 열렸다고 한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팔관회와 더불어 고려의 2대 명절인 연등회는 국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제한

관등불사(觀燈佛事)의 유래는 가난하고 마음이 착한 한 여인의 등공양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불을 밝히는 뜻은 자혜의 광명(光明)으로 중생의 무명(無明)을 밝혀주고 아울러 부처 앞에 등불을 밝혀 불덕(佛德)을 찬양하는 것이다.

된 불가의 행사에서 벗어나 국가적 명절로 발전되었다. 불교문화의 융성에 따라 국민적 행사로서의 연등회는 그 규모가 거창하고 호화로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에 의하면 4월 초파일 연등회는 고려중엽이후 시작되어 말엽까지 한 해에 두 번 2월 연등과 4월 연등이 있어 왔다.

조선왕조시대에는 배불숭유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공의로서의 연등회는 폐지되었으나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전승되어 왔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종 12년(1412)의 정월 대보름날 연등시에 용·봉·호랑이·표범 등의 등을 만들어 장식하였다고 하며 성종6년(1475) 4월 초파일에는 집집마다 온갖 모양의 등을 달아 각기 기묘한 모양을 자랑하였다고 한다.

연등회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동국세시기’에 보인다. ‘동국세시기’에 “우리나라 풍습에 4월 8일이 석가탄생일이므로 집집마다 연등을 한다. 이날이 되기 수십일전부터 여러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

등대에 매달아 깃발을 만들고 성안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쌀이나 돈을 구하여 비용으로 쓰니 이를 호기(呼旗)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금 풍속에 등대에 기를 다는 것은 호기의 유풍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4월 8일에 하는 것은 최이가 시작한 것이다.

4월 초파일에 내거는 등에는 수박등·마늘등·연꽃등·칠성등·오행등·일월등·공등·배(船)등·종등·북등·누각등·난간등·화분등·가마등·머루등·병등·항아리등·방울등·알등·봉등·학등·잉어등·거북등·자라등·수복등·태평등·만세등·남산등이 있는데 등은 종이를 바르기도 하고 붉고 푸른 비단으로 바르기도 했다. 또 운모를 끼워 비선(飛仙)과 화조를 그리기도 하고 편편한 면과 모가 진 곳마다 3색의 돌돌 만 종이나 길쭉한 종이를 붙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펴려있는 모습이 매우 멋있다.

북등에는 장군이 말을 탄 모양인 삼국의 고사(위·오·촉한의 옛일, 곧 제갈량을 비롯한 관우, 장비 등에 관한 그림을 그렸던 것)를 그렸다.

조선시대의 4월 초파일 놀이는 고려시대의 왕실과 귀족 중심에서 벗어나 민속놀이로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불자(佛子)와 비불자(非佛子)의 구별없이 거족적인 경축행사로 면면히 계승되어 오던 초파일 놀이는 조선조말 격변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불교의 교세 쇠퇴와 함께 자연스레 빛을 잃었으나 근래에 와서 불가의 큰 행사로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행사로 그칠 뿐 옛날처럼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㉞



“홍길동은 실존 인물”... 자녀와 함께 가볼만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귀여운 홍길동 만나러 장성으로 오세요!” 어린 이날을 전후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장성군 홍길동 생가터와 황룡강 둔치공원등지에서는 ‘불멸의 영웅! 홍길동’이란 주제로 제3회 장성 홍길동 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홍길동이 소설속 인물이 아닌 일본 오키나와에 울도국을 세우기까지 한 실존인물이라는 사실도 조명함으로써 자녀 동반 가족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한·일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홍길동은 당시 사회의 부패한 관료들과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등 권선징악을 행한 인물로 추앙받아왔다. 하지만 홍길동은 지금까지 소설속의 주인공으로만 알려졌을 뿐 조선왕조실록등을 비롯해 옛 역사서에 수없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실존인물이라는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홍길동 연구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홍길동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홍길동이 서기 1500년 2천여명의 무리를 이끌고 한반도를 탈출해 뱃길로 3천리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유구열도에 정치적 망명을 해 울도국을 세운 인물로 한국의 홍길동이 일본 오키나와의 영웅 오야케 아카하치(洪家王·홍가와라)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 8차례 다녀온 연세대 양권승 교수는 “이미 1939년 오야케아카하치라는 제목의 영화가 일본과 대만에서 상영됐으나 중국인의 독립운동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1877년 부터 홍길동과 오야케아카하치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일본 학



△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제2회 장성 홍길동축제의 공연모습



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조선인이 아닌 중국인 또는 베트남 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교수는 “그러나 일본의 양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오야케아카하치가 조선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5편 나왔으며 홍길동과 함께 일본에 온 망명자들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인물이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홍길동과 홍가와라에 관한 논문은 일본에서 모두 306편이 출간되었는데 이중 1백편이 이번 축제 기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축제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홍길동 선발대회, 홍길동의 도술을 상징하는 환상적인 마술쇼인 홍길동 매직쇼, 읍면대항 홍길동씨름대회, 홍길동 캐릭터 무용단 댄싱 공연, 홍길동의 일본 활약상이 두드러졌던 일본 오키나와의 오하마 민속공연단 초청 특별공연, 연예인과 일반 군민이 참가하는 장기자랑 ‘광주MBC노래열전’ 등 온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린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가상영화촬영·울도국 뗏목타기·홍길동 바보트와 함께·짚풀공예교실·퍼즐맞추기·고무줄새총쏘기등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 행사장 주변에선 홍길동자료전시·관광사진전·홍길동유구발굴 전시와 함께 홍길동캐릭터 상품·농특산품·향토음식등이 판매된다.

축제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길동샘·필암서원·백양사를 둘러보고 장성군 미락단지에 들러 백암산 산채에다 손맛을 더한 산채정식과 용봉당을 즐겨보는 것도 여행의 또다른 즐거움이다.

이처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장성군은 행사장 주변 정비를 비롯 황룡강 둔치 공원내 유채꽃·철쭉·개나리등 꽃길 조성, 자동차 2천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장성 일대 안내 표지판 재정비, 축제 지원 군내 자원봉사자 모집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봄맞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릴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4월 10일에는 김홍식 장성군수(제3회 장성 홍길동축제 추진위원장)가 상경해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장·백인호 YTN 사장등과 30여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장성 홍길동 축제 기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홍길동축제의 캐릭터 사업과 생가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장성의 홍길동이 한국의 홍길동, 세계의 홍길동으로 알려져 국제수준의 지역축제로 발전하는 한편 달리 벌어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장성 홍길동 축제 추진위원회 상황실(061-390-7641~2), 지역문화이벤트 연구소 홍보팀(02-547-9625~6) 

금강산 포수

유성문화원 제공

옛날 아주 옛날이었다.

총을 매우 잘 쏘는 포수가 있었다.

총부리만 들이대면 날아가는 새가 똑똑 떨어졌다. 그만큼 그는 명포수였다. 꿩이든 노루든 무엇이든지 걸리기만 하면 마지막이었다. 그는 그만큼 실수라는게 없었다.

그 당시 금강산에는 호랑이가 우글우글 하였다. 호랑이들은 종종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과 짐승(가축)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호랑이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금강산에 들어가는 포수는 있어도 살아서 나오는 이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금강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는 포수는 없었다. 그때 앞에서 말한 포수가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제야말로 자기 솜씨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

이윽고 그는 금강산에 이르렀다. 산어구에 조그만 주막집이 있었다. 그는 그집에 하루동안 묵으면서 금강산 호랑이를 몽땅 잡겠노라고 주막집 할머니한테 큰 소리를 쳤다.

저런 당신도 호랑이밥이 될 참이오? 묵숨이 아깝거든 일찍 돌아가시오」

무슨 말씀이오. 내 총에 안쓰러질 호랑이가 있단 말이오?」

난 여태까지 금강산에 들어가는 포수는 많이 보

았어도 나오는 포수는 못보았소.

할머니 이제 두고 보시오. 내가 호랑이를 들러메고 나올테니...」

포수는 한바탕 너털웃음을 웃고는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뒤 그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포수가 집을 떠날 때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이 이젠 다 커서 아버지 못지않게 총을 잘 쏘았다. 그는 아버지 없는 내력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호랑이를 꼭 자기 손으로 잡으려고 몇번이고 다짐했다.

그의 나이 스무살이 되자 자기 어머니한테 금강산에 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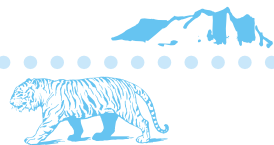
네의 아버지는 명포수인데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는데 너가 가서 무엇을 하겠단 말이냐?」

그의 어머니는 못가게 말렸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원수를 꼭 갚고 올테니까요.」

그는 즐기치게 어머니를 졸라댔다. 아들의 청에 못이긴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의 청을 들어주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네 아버지는 내가 물을 길어가지고 올 때 총을 쏘면 물동이 손잡이만 떨어뜨릴 만큼 연습을 했다.」 그 뒤 3년이 지나자 그는 정말로 물동이의 손잡이만 맞히어 떨어뜨릴만큼



그 당시 금강산에는 호랑이가 우글우글 하였다. 호랑이들은 종종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과 짐승(가축)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호랑이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금강산에 들어가는 포수는 있어도 살아서 나오는 이는 없었기 때문이다.

총을 잘 쏘았다. 아들이 이제 되었다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또 다른 말을 했다.

‘얘야 그것을 가지고 되겠니? 너의 아버지는 십리밖에서도 바늘구멍을 맞히었는데 ….’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다시 삼년이 지났을 때 그는 어머니가 말한만큼 총을 잘 쏠수 있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주었다.

아들은 기뻐서 어쩔줄 모르면서 금강산 아래 그의 아버지가 묵었던 주막집에 이르렀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한것처럼 장담을 했다.

그런 소리마오. 젊은이의 아버지는 저기 저 가축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을 뒤에서 보지 않고 쏘도 척척 맞히었다오. 그런데도 금강산에 들어서 살아나오지 못했는데 젊은이의 솜씨 가지고는 어렵겠소.’

주막집 할머니는 젊은이가 너무 큰소리를 치기에 이렇게 대꾸했다. 그는 이말을 듣고 뒤로 돌아 총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어렵없는 일이었다.

그는 거기서 또 3년동안 연습했다. 3년이 지나자 그는 뒤에 있는 것도 무엇이든지 보지 않고 척척 맞혔다. 주막집 할머니는 다시 말했다.

‘그것만 가지고 될 줄 아오? 젊은이의 아버지는 10리 밖에 기어가는 개미도 척척 맞혔는데 ….’

그는 다시 3년동안 훈련했다. 그제야 주막집 할머니는 주먹밥을 싸주며 산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다.

그는 한손에 총을 들고 이 산 저산 금강산 일만이 천봉을 헤매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가 큰 바

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데 스님 한분이 지나다가 부싷돌로 담배를 피웠다.

그는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의 입속을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스님은 시뻘건 잇몸에 호랑의 이빨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는 이것 저것 더 생각할게 없었다. 그는 얼른 총을 들이대고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지금까지의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마리가 벌렁 나자빠 지는게 아닌가.

그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길가에 있는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는 배가 몹시 고파서 감자 한개만 달라고 사정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럴 새가 없어 ….’

하고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런데도 포수는 다시 사정을 하였다.

‘그럴새가 없대두 그래. 조금전에 우리 영감이 나쁜놈에게 죽었어.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그럴 새가 없단 말야.’

그 할머니는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포수는 우두커니 서있는데 그 할머니 뒤 치마사이로 호랑이 꼬리가 살며시 나와 있었다. 그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얼른 총을 쏘았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커다란 호랑이가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앞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내려오고 있었다.

때마침 그는 목이 말랐다. 그는 젊은 여인에게 물



한모금 달라고 청했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 조금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쁜 놈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연락이 와서 가는 길이에요. 빨리 가서 그분들의 복수를 해야 해요.」

젊은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정신없이 발을 옮겼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뒤를 보니 치마사이로 역시 호랑이 꼬리가 보였다.

그는 얼른 총을 쏘았다.

이번에는 아주 젊은 호랑이가 나자빠졌다.

그는 다시 길을 걸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여보 좀 쉬면서 얘기나 하다 가시오.」

쉬어 갈 정신이 어디있소. 지금 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는데 빨리가서 살려야겠소.」

젊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고 있었다. 포수는 그것도 호랑이가 아닌가 하고 뒤를 바라보는데 그 젊은이도 호랑이 꼬리를 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총을 쏘았다. 이번에도 커다란 호랑이가 쓰러졌다. 그가 가는 곳마다 호랑이가 쓰러졌다. 그는 의기양양했다.

며칠이 지났다. 어느 산기슭을 돌고 있는데 그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한마리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털이 하얀 호랑이는 입을 딱 벌리고 앉아 마치 그를 삼킬 듯이 으르렁 거렸다. 그는 재빨리 총을 들어 호랑이 입을 향해 쏘았다. 그는 계속 연발로 총을 쏘았다. 마침내 총알이 떨어졌다.

그가 당황하고 있을때 호랑이가 달려와 그를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는 호랑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캄캄한 굴속같은 호랑이 뱃속은 굉장히 넓었다. 그는 혹시 자기 아버지도 있는가 살펴보는데 정말 자기 아버지 이름이 있는 총을 발견했다. 그러자 그는 한층 더 원통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는게 하필 아버지를 삼킨

호랑이한테 먹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옆에 정신을 잃은 처녀 하나가 있었다. 그는 그 처녀를 만져 보았다.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한참후에 정신을 차린 처녀는 어제밤에 머리를 감다가 호랑이에게 먹혔다는 것이다. 둘은 도망갈 궁리를 하였다. 한참동안 생각에 잠겼던 포수는 주머니에서 장도칼을 꺼냈다. 그리고 호랑이 궁둥이 쪽을 조금씩 칼로 오렸다. 호랑이는 갑자기 배가 아픈것을 느끼고 의사인 곰한테 찾아갔다.

배가 아프다고? 그런것쯤은 과일을 실컷 먹으면 낫지.」

곰은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는 과일을 닥치는대로 잔뜩 따먹었다. 호랑이 뱃속에 있는 두사람은 호랑이가 삼킨 과일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과일을 먹어도 계속 배가 아프자 호랑이는 다시 곰한테 가서

아무리 과일을 먹어도 배가 더 아프니 어쩔런지 이요?」

곰은 맑은 샘물을 잔뜩 먹어보라고 했다. 호랑이는 샘터로 가서 물을 벌걱벌걱 들이켰다.

호랑이 뱃속에 있는 두 사람은 이제 맑은 물까지 마시고 더욱 기운이 왕성해졌다. 그들은 열심히 호랑이 뱃속을 은장도로 오렸다. 호랑이는 마침내 기운이 빠져서 발에 쓰러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드디어 호랑이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포수는 호랑이 가죽을 잘 벗겨서 처녀의 아버지에게 선물로 바쳤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는 젊은 포수를 사위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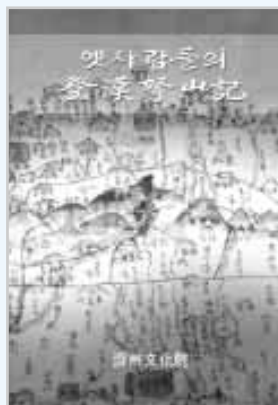
한편 끈질긴 인내심으로 아버지 원수를 갚고 정승의 사위까지된 젊은 포수는 시골의 어머니와 금강산 주막집 할머니를 모셔다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 금강산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이재호 목사 설득해 독일인으로선 첫 한라산 올라

제주문화원 제공

제주문화원은 최근 임제·김상헌·김치·이형상·이원조·최익현·이은상 등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라산을 오른 명사들의 등반기 가운데 몇편을 골라 '登漢拏山記'를 펴냈다. 이 중에는 특히 독일 출신의 지리학 박사인 지그프리트 겐테의 등반기도 실려있어 눈길을 끈다. 겐테(1870~1904)는 중국을 경유해 1901년 한국에 도착한 후 제주의 한라산을 답사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 해에 제주도에서는 이재수 난이 일어났는데 당시 겐테는 제주를 먼저 다녀간 왕실고문 미국인 센즈를 만나 제주도에 대한 예비지식을 얻었다. 제주목사에게 보일 소개장과 함께 여행도중 신분의 안전을 위해 통행증을 발급받고 인천에서 현익호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재호 목사는 겐테의 한라산 등반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겐테는 집요하게 목사를 설득시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라산을 등반하게 된다. 그는 한라산의 높이가 해발 1950m임을 밝힌 최초의 학자다. 원문은 킬른 신문(1901. 10. 13~1902. 11. 30)에 '한국 지그프리트 겐테 박사의 여행기'로 연재했는데 제주대학교 독문과 송성희 교수가 '제주도사 연구' 제3집(1994)에 전문번역을 실은바 있다. 여기서는 한라산 등정 부분만을 뽑았다.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는 향토사학자 김봉옥선생이 번역을 맡고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용만씨(사진작가)가 사진을 제공해 출간하게 됐다. (편집자주)

인 천을 출발한 지 세 번째 맞는 아침 6시경, 배(현익호)는 해안선으로부터 2.3km 해역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바다가 너무 거칠어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주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보낸 배는 거대한 뗏목이었다. 그래서 나의 수행원과 물건들은 그 뗏목에 싣고 육지로 향하였다.

사진도구·해군용 망원경·기압계 그리고 기타 귀중한 물건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애를 썼다. 해안

에 도착하자 내 짐을 뗏목에서 물으로 옮기는 선부들쪽으로 사람들이 달려와서 호기심으로 이방인을 훑어보는 것이었다. 통역관이 목사(牧使:제주도는 옛날 제주목이었으므로 그 수령이 목사였으며, 지금의 도지사와 같으나 당시에는 군사권과 재판권까지도 갖고 있었음)의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이에, 나는 여기 해안에서 기다리면서 원주민의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거리는 좁고, 역새로 덮은 집들의 지붕은 폭풍에 대비하여 묵직한 맞줄로

워여 있는데, 그 위에 또 까만 용암 돌덩이들이 올려져 있었다.

마침내 통역관이 들어왔다. 뒤에는 목사의 파발꾼과 관원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왔다. 그들은 목사를 대신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내가 머무는 동안 거처할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들은 작은 집으로 몇 채로 이루어진 곳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그 집은 나와 나의 수행원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환대해 준 데 대한 답례로서 프랑스산 포도주 몇 병, 캘리포니아산 과일 몇 상자, 러시아산 고급차 2파운드, 일본산 담배 12갑을 챙겨서, 통역관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나의 명함과 함께 목사에게 전하면서 숙소를 마련하여준 데 사의를 전하게 하였다.

이재호(李在護) 목사가 수행원들과 함께 사동을 앞세워 찾아왔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족장처럼 하얀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우람한 체격이었고, 누르스름한 비단 제복에 고운 털로 만든 빨간 구두를 신고, 양쪽 귀 뒤쪽에는 연옥으로 만든 커다란 단추가 달려 있어, 그 사람이 고관(高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한라산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원주민이건 이방인이건 아직까지 한라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함과 안정을 누군가가 깨뜨리는 날이면 산신령이 악천후와 홍작과 역병 등으로 반드시 이 섬을 웅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와서 산신령을 괴롭히는 이방인에 대하여 항의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나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가 결코 묵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세계 각국의 사정을 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과 마부와 안내자 등을 요청하여 등산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목사는 나에게 산에 올라가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도록 다시 한번 설득하였다. 그는 나에게 수상쩍은 기계를 다룰 때 나에게 가벼운 불상사라도 생길까 우려하였다. 그는 최

근에 천주교도들이 317명이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목사에게 높이 측정의 비밀을 설명해 주려고 시도하였고, 사진기가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에게 납득시켰으며, 목사와 그 부하들의 사진도 몇 장 찍었다. 그러자 그는 최근에 임금님이 섬의 무장을 위하여 파견한 중대 병력 중에서 호위대를 내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는 당장에 지시되었다. 그리하여 무장한 강화도 수비병 소대 병력이 나와 함께 출정 준비를 갖추도록 시달리고, 한라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높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었다. 이렇게 해서, 미신을 믿는 섬사람들의 적개심에 찬 시위를 될 수 있는 한 피할 수 있었다.

19C 초 죽은사람 뗏목에 실어 먼바다로 보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제주 성의 서문을 통해 출발했다. 주민 모두가 나의 집 앞에 모여 있었다. 제주 목사가 그의 관헌들과 함께 성문에서 작별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과 거지들은 한참 더 함께 걸어서 목사가 관할하는 구역넘어까지 우리를 따라왔다. 이제 용암석들이 깔린 들판을 넘어 정확히 서쪽 방향으로 우리는 해안을 따라 걸었다.

이 때부터 비로소 잠시나마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거닐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한라산이 지극히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서쪽 방향으로부터 이내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 섬의 아주 낮은 지대에는 상당히 밀집하여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았다. 수많은 마을과 몇몇 농원들을 보니, 해안에서 아주 가깝고 표고가 매우 낮은, 길이 약 70km, 너비 약 30km의 해안지대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섬에는 20만~30만명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듯 싶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물 때문에, 땅 위를 덮고 있는 단단한

화산암층이 벌써 파괴되어 비옥한 돌밭으로 개조된 비교적 낮은 지대에서는 어디에서나 부지런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개는 제주의 특산물인 것으로 여기서는 수수나 고구마가 경작되었다. 그러나 높이가 500m밖에 안되는 곳에서부터는 밭이 끝나고 만다. 수많은 무덤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각 무덤은 밭과 꼭 마찬가지로 까만 화산암 돌덩이로 쌓은 높은 담이 둘러져 있었다. 그런데 이 담장을 때문에 상륙했을 때부터 받았던 무뚝뚝한 듯하며 이상야릇한 인상이 더 한층 깊어진 것 같았다.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그냥 뗏목 위에 실어 먼바다에 띄워 보내어 바람과 파도에 내맡겼다. 오늘날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특징의 불교 풍습을 상기시키는 이런 괴이할 정도로 환상적인 이 풍습 대신, 근세에 매장 풍습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어떤 영향 때문인지 들은 바 없다.

물론 일본에서도 떠내려보내지는 것은 지금은 신선 자체가 아니라 작은 종이배뿐이다. 앞일을 모르는 운명의 노리개로서 영혼을 상징한다고 하는 타오르는 초 하나가 실린 이 작은 배를 세가키(아무 연고도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한 공양) 제의 때에 바다로 띄워 보내면서, 해안에서는 스님들이 불에 타기 시작한 제단 앞에서 죽은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 경을 읽었다. 그 제단 위에는 한자로 “세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라는 의미의 다섯 글자가 새겨져 있다.

아마 제주에서는 불교가 사멸하면서 시신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풍습도 없어졌을 것이다. 불과

2~3세대 전에, 제주 사람들은 오늘날 천주교도를 다루었던 방식으로 불교 신자들을 다루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그들은 그 위대한 구원자를 추종하는 모든 제자들을 때려 죽였으며, 법당을 불태웠으며, 절들을 부수었고, 한때 이곳 제주나 다른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구제 종교로 간주되었던 이 종교의 마지막 징표들을 절멸시켰던 것이다. 나의 탐험은 이 불교 퇴치의 자취를 알아보려는 데에도 있었다. 시내에서부터 중간쯤 산을 올라가면 불교 사찰의 유허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

오래 전에 버려져서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지붕이나 담장의 일부는 아직 남아 있을 테니까, 비상시 밤을 지내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우리는 거의 1000m를 기어 올라왔다. 그러나 부서진 절은 도무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짐꾼들은 점점 더 역정을 냈다. 두 세 시간 전부터 그들은 장시간의 휴식을 요구하였다. <중략>

그때 갑자기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사람들이 있을터였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불빛을 향해, 뻣뻣한 덩불과 등성등성한 덩불을 헤치고, 질퍽질퍽하고 힘겨운 원시림 한 가운데



△ 남벽 정상에서 본 백록담

데를 지나 똑바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과 방책을 제공해 줄 그 불빛을 향해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접근해 갔다.

안내자가 신호기 삼아 지니고 왔었던 커다란 고동을 불었다. 거대한 고동에서 밤의 적막 속으로 울려 퍼진 굉장한 소리에 대해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날카로운 도끼질 소리가 또렷이 들려 왔다. 일하고 있는 나무꾼들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파스한 불꽃을 받아 약간 또렷하게 보이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무가지들 사이에서 어른거리는 것도 보였다. 중국해(海)에서 이 바위섬에 표류해 온 랍란드(유럽 최북단 지방의 이름) 사람들처럼 두툼한 모피외투를 입었으며, 귀덮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갑자기 짐꾼들이 자기들의 짐을 내동댕이치고는 무섭게 소리치며 모피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고 있는 쪽으로 내달렸다.

내가 힘겹게 덤불숲을 헤치고 나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 낯선 사람들과 짐꾼들 사이에 본격적인 격투가 벌어졌다. 순식간에 마부와 호위병, 그리고 안내자 등이 이 짐꾼들 편에 가세했다. 큼직한 몽둥이들을 가지고 그들은 어리둥절해진 벌채꾼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그들에게서 도끼를 빼앗았으며, 내동댕이친 짐들이 널려 있는 곳으로 그들을 질질 끌고 왔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이런 거친 돌발사태의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 산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부역을 강요했던 것이었다. 내가 그 점을 나무라자. 통역관이 “제주식입니다, 선생님!”이라고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동굴에서 숙박... 코낙으로 분위기 평화로워져

나무를 자르다가 무참히 제지당했지만 더 이상 투덜대지 않고 나의 짐들을 짊어진 산골 사람들이, ‘예전에 여기에 있었던 절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

다는 안내자의 말이 틀림없다’고 했다. 십리(약 5km)쯤 더 가면 그들 자신의 숙소가 있다고 했다. 거기에서 나무벌채자들의 가족이 모두 살고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산봉우리 바로 밑에서 밤을 지낸다는 것이었다. 이방인과 그 동행인들이 함께 묵기에 아마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횃불, 즉 연기를 내면서 타는 간단한 소나무가지들을 이용하여 힘겹게 기둥이 걸어서 덤불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이제는 최소한의 길의 윤곽마저 분간해 낼 수 없었다. 날카로운 잎의 침엽수림이나 가시달린 온갖 총림과 가시덤불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하층림으로 사방이 덮여 있었다. <중략>

이렇게 지극히 고통스럽고 기진맥진하게 기어 오른 지 꼭 두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멈추어 서더니, 집에 도착했다고 그 나무꾼들이 선언했다. 우리 앞에 낮고 길다란 틈새가 열렸고, 그 안에서 불빛과 짙은 연기가 밀려 나왔다. 몸을 굽혀야만 그게 바위에 뚫린 동굴의 입구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 동굴은 뒤쪽으로 바위 깊숙히 무한히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반면에 그 높이는 중키의 사람도 그 안에서 바로 설 수 없을 정도였다.

동굴 한 가운데에서는 소나무 장작과 마른 나뭇잎에 붙은 커다란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는 남자들과 여인네들과 아이들이 겨울용 우리 속에 양들처럼 모여 살며, 거친 가죽옷과 목화솜을 넣은 헐렁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털가죽 모자와 귀덮개를 쓰고,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했다. 그 사람들은 산체에 살고 있는 한라산의 나무꾼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백인을 본 적이 한번도 없었던 듯했다.

그래서 늦은 밤시간에 산 속의 집에 숨어 있는 자기를 찾아 내어 그들과 함께 지낼 채비를 하는 침입자를 미심쩍은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나는 통역관과 왕실 관리를 통해서 몇 마디 좋은 말로 그들이 나에게 밤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나를 따라 온 사람들도 자리를 얻어 추운 밤

에 밖에 있지 않도록 해 준다면 고맙겠다는 말을 전하게 했다. 그들은 기꺼이 우리 일행의 뜻대로 하게 해주었으며, 우리 일행은 곧바로 짐을 안으로 옮기고 그 짐들을 쌓아 사각형의 견고한 진영처럼 만들었다. 한 가운데에 나의 침상이 설치되었으며, 약간 옆쪽에 부엌을 만들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요리사로 하여금 당장 일을 시작하여 따끈한 음식을 서둘러 준비하도록 했다.

분화구에 오르니 찬란한 ‘파노라마’가...

이 곳 산 위에는 대단히 추웠다. 커다란 불이 있고 온 몸에 백양나뭇잎처럼 두툼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나무꾼들은 벌벌 떨었다. 마르지 않은 나무와 젖은 잎이 불에 타면서 동굴 구석구석까지 매운 연기가 가득찼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아래쪽 시내의 온도는 아직도 섭씨 35도였는데, 여기 산 위 동굴 속 나의 침상이 설치된 땅 바닥의 온도는 섭씨 12.5도밖에 되지 않았다. <중략>

내부 온기가 아주 많이 약화된 대신, 나는 모든 사람들(나무꾼은 23명이었고, 나의 수행원은 12명이었음)에게 내가 가지고 온 코냑과 담배를 나누어 주게 했다. 내뿜은 열이 있었지만 나는 직접 차 한 잔 끓였다. 급하게 내려 가는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림’ 주(酒)와 차를 어느 정도 같은 분량으로 섞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코냑으로 굉장한 성과를 얻었다. 한국 사람들은 독한 발효 음료를 아주 즐겨 마셨다. 그러나 쌀과 수수로 빚은 한국 고유의 소주는 같은 재료를 써서 만든 중국의 ‘삼쑤’ 보다 두드러진 약마의 영향처럼 보였다.

코냑이 “호르는 불처럼” 자기들의 몸을 타고 흐른다고, 이 ‘폼술’(프랑스 화주) 한 잔은 ‘한국 술’ 1만 잔을 마신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래서 코냑을 마신 뒤 거대한 그 동굴 안의 분위기는 이내 좋아졌다. 기이하고 도적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운 정경이 펼쳐졌다. 나

는 작은 요정들이나 뽀빠알(술레지엔 주에 있는 큰 산맥의 산신령)의 난쟁이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의 저녁식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대단히 열심히 진행되었다. 비록 한국인이었지만 아주 확실하고 재빠르게 외국의 통조림과 병들을 다룰 줄 알았던 그 요리사는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승마용 각반, 장화, 가죽바지,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만져 보고, 냄새를 맡아 보고는, 하나씩 차례차례 돌렸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좋소!” 라는 칭송을 받았다. 이 칭송은 후렴이 있는 노래처럼 바닥에 웅크리고 빙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의심은 완전히 없어졌으며,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라산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다. <중략>

높이 1200m 지대부터는 숲을 이룬 나무와 소나무들이 없어지고, 나지막하지만 대단히 뾰족한 숲이 이어져 있었다. 이곳에서부터는 아주 낮고 마디가 있으며 단단한 재질의 관목들밖에 없었다. 이 관목들에 달린 불그스레한 작은 열매들을 안내자와 짐꾼은 계속 따 먹었다. 이 열매에는 노간주 나무 열매로 담근 두송주(杜松酒) 냄새가 약간 나고 가루모양의 부드러운 과육이 있었다.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를 발견해 낸 결과 한국 사람들은 힘을 얻어 원기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중략>

6.2km를 행군한 뒤 마침내 우리는 화산 위에 얹혀진 정상 of 원추 모양의 용암에 이르렀다. 이 용암은 매끈하게 갈아 놓은 듯이 사방이 똑같이 가파르게 내려뻗어 있었다.

이 마지막 300m까지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시간 반 동안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고 기침을 하면서 분화구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잠시 모든 피로를 잊는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찬란한 ‘파노라마’가 돌연 산으로 된 섬 전체와 바다 저 멀리까지 끝없이 사방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 <다음호에 계속>

광 한 루

남원문화원 제공

한 줄기 은하수가 난간밖으로 스쳐가니
 맑은 물빛과 하늘 그림자 허공을 뚫고가네
 깊은 밤에 들려오는 방망이 소리는 어디서 들려
 오르고
 이것은 아마도 월중에서 악을 쫓는 소리인가 짐
 작 되누나.

이 시는 점필재 김종직이 광한루를 두고 지은 광
 한루 예찬시다.

남원하면 광한루가 연상되고 광한루하면 춘향이
 를 생각나게 한다. 그만큼 광한루는 남원의 상징이
 며 명물이다.

보물 제28호로 지정된 광한루는 조선조 초기 세
 종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黃喜)가 남원에 유배되었
 을 때 누각을 짓고 '관통루'라 했던 것이 효시이다.

그 후 1434년 세종 16년 남원부사 정여공이 중
 수하고 1444년 당시 전라감사였던 정인지(鄭麟趾)
 가 이 누각에 올라 경관을 감상하다가 "호남의 승격
 으로 달나라에 있는 궁전 광한 청허지부가 바로 이
 곳이 아니던가"라고 감탄하여 그후 「광한루」라 부
 르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 때의 건물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

해 소실되고 현재의 건물은 1638년 당시 남원부사
 이던 신감이 복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한루의 전·후면에는 '호남제일루', '계관',
 '광한루'란 현액이 걸려있다. '호남제일루'는 말그
 대로 호남에서 제일가는 누각이란 뜻이며 '광한' 과
 '청허부'는 하늘나라 월궁의 궁전 이름이며 '광한
 청허지부'란 신화적 전설을 상징하고 있으며 '계
 관'은 달나라의 계수나무 신궁을 상징한다.

1896년 무렵 광한루 본관이 차츰 북쪽으로 기울
 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누의 북쪽에 다락을 세워
 층층대를 만들어 놓았다.

북쪽 층층대는 1877년(고종 14년)에 부임한 남
 원부사 이용준이 광한루가 퇴락하여 본관 전체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붕괴우려가 있어 수지면 고평
 리에 사는 추대목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북쪽에
 누를 오르내리는 계단을 만들되 본관과 같이 아름
 드리 기둥을 세워 튼튼하게 고정시켜 본관의 기울
 음을 바로 잡고 외관으로도 더 화려하게 하였다.
 이는 우리의 누각 건축사상 큰 의의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누각에 현관을 가설하게된 시
 초이다.

한편 순종 4년(1910년) 10월 1일 일본의 남원재
 판소 및 헌병분견대를 이곳 광한루 경내에 설치하
 였다가 18년후에 지금의 법원으로 옮긴바 있다.

광한루원은 관광남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의 역할과 함께 문화축제의 장으로 시민공원이란 기능도 수행하는 복합적 공간이다. 1400년대 조선된 광한루원은 영주·봉래·방장 등 3개의 섬을 비롯 누앞에 자라의 석조상을 배치하고 오작교를 놓았다는 점으로 볼 때 조선시대의 정원 중 신선사상을 가장 잘 부각시킨 사적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광한루원은 전체적인 구성이 우주를 상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한루’ 하면 누각만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광한루’가 있는 ‘광한루원’까지를 포함해서 부른다. ‘광한루’가 위치한 ‘광한루원’은 창덕궁에 딸린 비원처럼 ‘광한루’에 딸린 정원을 지칭한다.

‘광한루원’은 조선시대 만들어진 대표적인 정원으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의 독특한 조경양식이 탄생하는데 그 모체가 되었다. 사적 제303호로 지정된 ‘광한루원’은 우리나라 정원을 대표할 수 있을만큼 질적으로 우수해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광한루원’은 문화재적 가치가 큰 역사공간이라 할 수 있다.

광한루원은 관광남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의 역할과 함께 문화축제의 장으로 시민공원이란 기능도 수행하는 복합적 공간이다. 이처럼 광한루원이 역사와 현대가 공존한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은 자연적 사고방식 즉 신선사상과 음양오행사상 또는 수심양성(修心養成)의 도로 표현되는 송(松)·죽(竹)·국(菊)·매(梅)의 사절과 유교의 선비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광한루원은 누정의 전성기 이전인 1400년대 조성된 것으로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하하려할 때 이를 반대하다가 남원으로 유배된 황희(1363~1452)가 그의 선조 황감평이 지은 서실 ‘일재’를 헐어내고 새로 ‘광통루’란 누정을 세운데서 연유한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축하거나 보수를 해오다 1580년대에 본격적인 개축과 함께 정원이 만들어

져 광한루원에는 3개의 섬과 영주, 봉래, 방장 등 섬의 이름이 생겨났고 누앞에는 자라의 석조상을 배치하고 오작교가 놓여졌다는 점으로 볼 때 조선시대의 정원 중 신선사상을 가장 잘 부각시킨 사적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광한루원은 전체적인 구성이 천체(우주)를 상징하고 있다.

누각은 신화로 가득 채워져 천상의 은하수를 비유하여 직녀가 칠월칠석에 견우와 만나는 오작교와 신선사상의 영주, 봉래, 방장 등 삼신산이 춘향과 이도령의 아름다운 인연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이같은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춘향전이 탄생하였고 춘향의 얼은 오늘날 춘향문화로 승화시켜 축제가 탄생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향제’이다.문



△ 남원의 명소 광한루

일본 유학(儒學)의 원조 수은(睡隱) 강항(姜沆)을 기리는 한·일 심포지엄이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까지 영광군청 3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영광군이 주최하고 영광문화원(원장 조남식)·(사)영광내산서원 보존회(이사장 강대직)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낙연 국회의원·김봉열 영광군수·강종만 영광군의회 의장등 관내 주요인사를 비롯, 각계 단체인·군민·중고교생등이 대거 참석해 3백석 규모의 행사장을 꽉 메웠다.

문화관광부와 전라남도·영광군·영광군의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문화관광부가 3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수은 강항의 업적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

해 마련됐다.

수은 강항은 정유재란때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일본의 풍물과 지리, 인물 정보를 담은 적중봉소(敵中封所)를 선조임금에게 알리는가 하면 일본 유학의 시조라 불리는 후지하라 세이가(藤原惺窩)에게 유학을 최초로 전해 일본 유학의 원조가 된 인물.

김대통령 日국회사 '강항' 연설해볼만

이날 이해준 공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임치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나와 '수은 강항과 <간양록(看羊錄)>'이란 제목으로 첫

행사

영광문화원·영광내산서원보존회 주관 일본 유학(儒學)의 원조 수은(睡隱) 강항(姜沆) 문화유산 한일 심포지엄

강항은 韓日 새시대 열 '돌다리'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조남식영광문화원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장)



◁강대직 영광내산서원
보존회 이사장

주제발표를 했다. 임교수는 “정유재란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는 실기문학인 <간양록>은 공적기록인 ‘적중봉소(敵中封疏)’ ‘적중문견록(敵中聞見錄)’ ‘고부인격(告俘人檄)’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 등과, 사적기록인 ‘섭난사적(涉亂事迹)’이 서술방식에서 잘 구분돼 있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며 “공적기록을 서술할 때는 자신의 비통한 심경을 드러내지 않은 반면 사적기록을 서술할 때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어 공인으로서의 면모와 일반인으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또 “간양록의 필사본과 목판본은 여럿 있는데 이중 내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 현존 최고의 것으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간양록의 이름은 원래 강향이 자신을 낮춰 건거록(巾車錄·포로가 되었던 죄인이 쓴 기록)이라고 명명했는데 뒤에 후진들이 강향 선생의 시와 강향 선생이 좋아했던 석주 권필의 시에 나오는 간양(看羊)을 따서 간양록이라고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수는 강향선생을 연구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송금섭씨는 ‘강수은(姜睡隱) 선생 피납(被拉) <왜지유방(倭地遺芳)>의 재인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인들이 수는 강향선생을 비하하는 경향이 커 아직까지 호도 없이 그냥 강향이라 부르는가 하면 수는 강향선생이 탈출한 것 역시 일본인이 도와줬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수는 강향선생은 피납생활중에서도 각고의 어려움을 무릅쓰며 자력으로 돈을 모아 배를 구입해 탈출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희태 전남도청 문화재전문위원은 ‘수는 강향선생의 선양활동’이란 주제 발표에서 “강향선생은 정유재란시 일본으로 잡혀갔지만 지조를 지키며 성리학을 전수한 인물로 이갈



△일본대주 시민관 앞에 세워져 있는 홍유강향 현창비.

은 푸른 절개가 <간양록>의 곳곳에 배어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무라가미 쓰네오 재일본 강향선생연구회장은 ‘강향선생과 일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강향선생은 세토나이카이의 풍경을 ‘그림과 같다’고 하면서도 ‘여기는 귀신의 소굴이다’라고 쓰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강향은 염주처럼 묶인 채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한 일본인에 의해 구출되어 살아나자 ‘왜놈중에도 이 같은 지식인이 있는가?’라고 되뇌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국회에서 통신사절단에 관해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강향선생과 후지하라 세이가와와의 관계를 연설하면 일본인들도 감쪽 놀랄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본 추정 ‘巾車錄’ 소장 사실도 밝혀져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이낙연 국회의원은 ‘앞으로 일본의 새총리가 한국에 오거나 우리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게되면 외무부장관에게 당부를 하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모든 방법을 다 써 성사시키겠다’고 즉석 공약을 해 박수를 받았다.

또 주제발제자로 나섰던 송금섭 박사는 ‘나

는 강항과 관련해 3가지 의문이 있다”며 “그것은 첫째 후지하라 세이가가 왜 수은 선생을 가까이 하며 배우려 했는가, 둘째 적중봉소까지 합치면 17종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무엇을 보고 썼는가, 셋째 경문에 ‘倭訓’을 붙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체류기간이 1년여밖에 안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어학 실력을 쌓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고 말했다.

또 심포지엄이 끝나갈 무렵 청중중에서 강항 선

생의 12세 차손이라 밝힌 강종원씨는 “〈간양록〉의 원본인 〈건거록〉을 문중의 종손인 강점원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밝혀 심포지엄의 마지막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 〈건거록〉은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이 해준 공주대학교수와 임치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정황을 들은 결과 원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주관한 강대직 (사)영광내 산서원보존회 이사장은 “강항선생이 포로로 잡혀가

토 보 기

수은 강항은 누구인가?

포로 생활동안 지조 지키며 일본에 유학 전해

수은 강항(1567~1618)은 세조때의 문장가인 강희맹의 5대손으로 전남 영광군 불갑면 유봉리에서 아버지 강극검과 어머니 김씨의 다섯 아들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는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남원과 영광을 오가며 의곡을 모으고 의병을 일으켜 대적을 도모하다가 대세가 기울어 바다로 나갔다가 그만 왜적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일본 포로생활동안 두가지 대업을 남기게 된다. 하나는 일본의 지리와 풍물, 그리고 군사시설, 장수들의 인물됨됨이와 전쟁에 임하는 일본의 실정을 적은 장문의 비밀보고서인 적중봉소(敵中封疏)를 작성해 선조 임금에게 보낸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지식인을 통해 성리학(주자학)을 전해 일본의 문예증흥기를 여는 단초를 제공한 점이다. 강항의 적중봉소에는 당시 왜국의 풍물과 지리를 적은 '8도 66주도'가 그려져있다. 특히, 왜장들의 출신 성분과 그들의 특징들을 기록한 장문의 글은 임진왜란의 실상과 왜적의 준비과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우리 정책의 잘못도 꼬집었고 왜국의 축성술도 자세히 적어 우리나라 성(城)이 안고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당초 이 적중봉소는 3통을 작성해 각기 다른

인편으로 비밀리에 보내졌는데 중국 사신 왕건 공편에 보낸 것만이 조정에 닿았다. 그리고 나머지 둘중 하나는 강항이 이미 귀국한 후인 몇 해후에야 도착해 강항 본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성리학 전수는 강항과 당시 일본의 승려였던 후지하라 세이가와의 교분에 의해 이뤄졌다. 후지하라는 묘수원승순수좌(妙壽院僧舜首座)로 일찍이 우리나라의 통신사와 만나 서로 대화를 통해 학문적 교류를 가진바 있다.

이같이 조선의 문인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체험을 갖고 있던 후지하라는 몇년 후에 강항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 필담을 통해 유학을 전수받기에 이른다. 그 후 후지하라는 강항의 학식과 인품에 영향을 받아 성리학에 대한 경서를 읽게 되고 나중에는 도복으로 갈아입고 유교의식을 몸소 익히게 된다.

강항은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지 2년 8개월만인 1600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해 귀국하게 된다.



던 그 배의 출발지인 염산면 논잠포에 중앙 성균관에서 비문을 쓴 거대한 강항선생의 정유재란 십난사적비(涉亂事跡碑)를 건립한데 이어 내산서원 성역화 사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문을 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2박 3일 일정으로 12명의 탐방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던 조남식 영광문화원장(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장)은 “4년전 부터 매년 강항 선생을 문화인물로 신청해왔지만 계속 탈락돼 마음이 아팠다”며 “수은 강항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홍유(鴻儒) 강항 현창비’가 적국 일본에 끌려가 처음 상륙했던 대주(大洲·오오즈)성터인 대주시민관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은의 문화유산이 한·일간의 문화관광자원으로도 전망이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인 터 뷰

무라가미 쓰네오 재일본 강항선생연구회장

교육공무원 그만두고 ‘강항’ 연구 수년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흥기를 가지고 이웃나라 조선에 씻을 수 없는 잔악한 발자취를 남겼으나 포로로 끌려온 강항선생은 그의 학문으로 일본에 찬란하고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강항 선생을 수년째 연구해 오고 있는 일본인 무라가미 쓰네오(67)씨는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 강항 선생을 아끼고 흠모하는 열렬한 ‘팬’이다.

20여년동안 시청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던 그는 우연히 강항 선생의 저서인 간양록을 읽고 감명을 받아 정년퇴직을 3년 남기고 퇴직 한뒤 곧바로 강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현재 재일본 강항선생연구회장. 일본에서 강항선생에 대한



△ 무라가미 쓰네오

인지도가 어느 정도냐고 묻자 무라가미씨는 지금까지 강항 선생은 일본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항 선생이 8개월 동안 포로생활을 했던 대주(오오즈)시의 마쓰다 요이치 시장이 강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등 앞으로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재조명할 가치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무라가미씨는 주제발표 자리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국회에서 강항선생과 후지하라 세이가와의 교류에 관해 연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라가미씨는 “강항선생 일행이 대주(오오즈)시 히지강에 빠져 익사 직전 한 일본인에 의해 구출되자 ‘왜놈중에도 이같은 지식인이 있는가?’ 라고 말한데 큰 감동을 받았다”며 “바로 그 강변에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뜻으로 비석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를 끝내고 토론회에 참석해 청중들로 부터 질문을 받고 하나 하나 답변을 하다 끝내 눈물을 왈칵 쏟았다.

“우리 선조들이 한국에 대해 대죄를 범했다면 후손인 나도 죄인인데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노리개



편집부

노리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여러 가지 장신구 중의 하나다.

여성의 몸치장용으로 주로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등에 패용하는 패물 중의 하나이다.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강조해 주는 것으로 궁중에서는 물론 상류사회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었다.

노리개의 기원

노리개의 기원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삼국시대 요패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삼국시대는 저고리에 해당하는 상의가 길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둘렀는데 이 허리띠에 갖가지 장식품을 달았다.

즉 요패를 사용한 것이다. 신라의 요패가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어 형태와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에서도 장식품이 달린 허리띠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서궁이 저술한 ‘고려도경’에는 고려시대 부인들이 허리에 금탁과 금향낭을 찼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고려후기에 여성의 저고리 길이가 점점 짧아지자 허리띠에만 차던 것을 옷고름에도 차게 되었다. 나라의 궁중의식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주로 패용했으며 간단한 것은 일상시에도 달았

는데 양반 계급에서는 집안에 전래하는 노리개를 대대로 물려주어 가풍을 계승하기도 했다.

노리개는 외형상 섬세하고 다채로우며 호화로운 장식이기도 하였지만 정신적인 배경으로 부귀다남, 불로장생, 백사여의 등의 시대적 행복관을 바탕으로 하는 여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노리개외에도 실용적인 면과 부덕(婦德)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향갑, 침낭, 장도 등이 있다.

노리개의 구성

노리개는 삼작(三作) 또는 단작(單作)으로 띠돈(帶金), 끈목(多繪), 패물, 매듭, 술 등 다섯가지로 되어 있다. 띠돈은 가장 위에 있는 고리로서 노리개를 고름에 걸게 만든 것이다.

재료는 주로 금, 은, 백옥, 비취옥, 금패, 산호 등이 있고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화형(花形), 쌍희자문(雙喜字紋), 용문, 불로초문 등의 길상(吉祥)무늬를 사용한다. 끈목은 원다회(圓多繪)를 주로 쓰는데 띠돈과 패물, 술을 연결하며 매듭을 맺는다.

삼작노리개는 3개의 노리개를 한벌로 꾸민 것으로 대삼작, 중삼작 노리개는 궁중과 상류사회 계급에서 소삼작노리개는 젊은 부녀자나 어린이들이 사용하였다. 단작노리개는 삼작노리개 중의 한개를 따로 달거나 애초부터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노

리개이다.

노리개의 색조는 3색을 비롯하여 12색에 이른다. 삼작노리개는 홍색, 남색, 황색의 3색을 기본으로 썼고 분홍, 연두, 보라, 자주, 옥색 등을 쓰기도 하였다.

또 노리개의 위쪽에 다양한 매듭이 있는 부분은 짧은 저고리의 길이와 비례하고 길게 드리운 술부분은 긴 치마의 길이와 비례하여 일종의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다.

노리개의 용도

노리개에 다는 패물의 진귀함과 그 규모에 따라서 예복용과 평복용으로 구분되고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어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된다. 대례복에 차는 대삼작 노리개에는 손바닥 크기가 넘는 산호 가지와 백옥 나비 위에 진주, 청강석, 산호 등의 구슬을 배열하여 금속세공을 한 나비 한쌍과 주먹만 한 밀화불수(蜜花佛手)를 달아서 진귀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궁중에서는 철에 따라서 노리개를 달았는데 이를

테면 5월 단오절에는 백옥과 비취로 된 외줄 노리개를 달고 8월 추석부터는 삼작노리개를 달았다.

가례와 탄일 등 특별한 축의일(祝儀日)에는 왕비를 비롯하여 귀부인들까지 삼작 노리개를 달았으며, 평상시에도 왕비가 대비전에 문후를 드릴 때에는 금박 스란치마에 당의(唐衣)를 입고 삼작 노리개를 달았다. 왕비만이 달 수 있었다는 삼천주(三千珠) 노리개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주 큰 진주가 3개씩 꿰어져 있다. 소삼작이나 외줄 노리개는 소녀용으로 분홍·연두·노랑색으로 하거나 색동으로 만들었고, 도리매듭·국화매듭·가지방석매듭 등을 맺고 봉술·딸기술을 쌍으로 늘였다.

패물로는 동자(童子) 탐·오리·가지·도끼·방울·나비·주머니·호리병·고추 모양의 금속 세공품에 금을 올리거나 칠보를 올려 작은 은고리에 끼었다. 민간에서는 주로 은삼작을 달았는데 혼례 때에 사용하고 백지에 싸고 또 비단보에 싸서 보물 상자에 간직해 두었다가 친척의 혼례 때에나 꺼내서 이용했다.



△ 보석삼작노리개(왼쪽) 투화삼작노리개(오른쪽)

궁중에서는 철에 따라서 노리개를 달았는데 이를 테면 5월 단오절에는 백옥과 비취로 된 외줄 노리개를 달고 8월 추석부터는 삼작노리개를 달았다. 가례와 탄일 등 특별한 축의일(祝儀日)에는 왕비를 비롯하여 귀부인들까지 삼작 노리개를 달았으며, 평상시에도 왕비가 대비전에 문후를 드릴 때에는 금박 스란치마에 당의(唐衣)를 입고 삼작 노리개를 달았다.

노리개의 종류

노리개는 7개의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비방울술 노리개 : 남색·주홍색·금향색의 24사(絲)로 연봉 매듭을 맺고 그 끝을 10cm 정도 길게 늘어뜨려 연봉매듭 바로 밑과 끝에서 3cm위로 올라간 자리에 흰색을 먼저 감은 뒤에 배색이 되는 남·연두·노랑·주홍색 등의 색을 맞추어 감고 흰색 실을 감아 깔끔하게 처리하였다. 나비모양의 자주빛 마노와 밀화구슬을 달고 있다.

●대삼작 노리개 : 홍·남·황의 굵기 6mm의 동다회로 도리매듭·생쪽매듭·국화매듭·나비매듭을 맺고 간격을 맞추어 색실·금실·가락지를 끼우고 낙지발술을 늘어뜨린다. 띠돈은 나비모양의 은칠보이고 산호가지·밀화불수·옥나비 한쌍을 달았다. 전체의 길이는 35cm이다.

●도금투각호리병삼작노리개 : 용무늬를 입체감 있게 투각한 띠돈은 홍·남·황색의 가느다란 동다회를 곱쳐 걸친다. 그리고 국화매듭, 도리매듭을 맺어 산호구슬을 끼고 호리병을 끼운다음 또 산호구슬을 물렸으며 매듭 사이에는 금실가락지를 끼우고 봉술을 쌍으로 늘어뜨렸다. 전체의 길이는 32cm이다.

●물소뿔속노리개 : 분홍색 명주실로 가늘게 4사(絲)를 쳐서 도리매듭, 가시방석 매듭을 맺고 그 위에는 은지(銀紙)를 아주 작게 오려 붙였다. 물소뿔 2개를 포개놓은 것 같은데 잔물결 무늬와 앞사귀 무늬를 섬세하게 수 놓았고 그 밑에 무지개빛

비단실을 꼬아 길게 늘어뜨렸다. 저고리 고름과 안고름에 차는 수 노리개로서 전체의 길이는 37.5cm이다.

●원형향갑 색동팔기술 노리개 : 띠돈은 볼로초 무늬를 선각(線刻)하고 칠보를 올렸으며 홍·남색 동다회로 연봉매듭·매화매듭·국화매듭을 맺었다. 그 사이에 원형향갑과 산호구슬, 금실, 연두, 분홍, 노랑의 색실 가락지를 끼었다. 길이 27cm의 이작놀이개이다. 향갑에는 주로 사향을 넣었는데 여인들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은근한 향기를 풍기게 하였고 급성위장병이 생겼을 경우 구급약으로 썼다. 향갑은 금, 은, 비취, 산호, 옥, 마노, 밀화 등으로 만들고 비취발향은 향으로 빛은 구슬 위에 공작 깃털을 입히기도 했다.

●침낭 : 바늘집을 금속으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비단에 수를 놓아 노리개로 달고 다니게 꾸몄다. 부녀자들이 항상 쓰는 바늘을 손쉽게 찾기위한 방편으로 실용성과 장식을 겸했다.

●장도 : 주머니 속이나 노리개에 달아 찼는데 노리개에 찬 것을 패도라 하고 주머니속에 지니는 것을 낭도라 했다. 장신구 겸 규방부녀의 호신용을 겸했고 일상생활의 실용성까지 지닌 것으로 칼의 한면에는 일편단심의 글자를 새겨넣기도 하였다.

또 장도에는 은젓가락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외부에서 식사하게 될 때 젓가락으로 사용하고 음식 중의 독이 들어있는지를 분별하는 기구로 쓰기도 하였다.¹⁰⁾

※이 글은 민족문화사 발행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14일부터 문예회관 등지서 대한민국국악제 열려

제21회 대한민국 국악제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인사동거리(경인미술관 마당)·남산골 한옥마을 등지에서 열린다.

(사) 한국국악협회가 주최

하고 대한민국 국악제 사무국과 (주) 메타기획컨설팅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고의 명인들과 대표적인 단체들이 무대에 올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일정 ▷14일(월)=정악포커스(문예회관대극장 오후7:30~9:00), 이주환 선생 명인회고전(문예회관야외무대)·신인무대 가야금병창(문예회관 야외무대 오후9:20~9:40), 어깨춤을 추자! 호남 우도판굿(마로니에공원 오후 2:00~3:00), Tuned With Nature 가야금병창 국극(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오후 3:00~4:00), 남사당길놀이·창작국악공연(인사동 경인미술관 마당 오후 4:00~5:00)

▷15일(화)=기악과춤 포커스(문예회관 대극장 오후7:30~9:00), 신패동선생 명인회고전(문예회관 야외무대), 신인무대 기악산조(문예회관 야외무대 오후 9:20~9:40), 어깨춤을 추자! 여수상문살굿(마로니에공원 오후 2:00~3:00), Tuned with Nature가야금 병창 시조(남산골 한옥 마을 천우각 오후3:00~4:00), 남사당길놀이·창작국악공연



(인사동 경인미술관마당 오후 4:00~5:00)

▷16일(수)=소리포커스(문예회관 대극장 오후 7:30~9:00), 박초월 선생 명인회고전 (문예회관 야외무대), 판소리(문예회관야외무대 오후

9:20~9:40), 부여산유화가·사물놀이판굿(마로니에 공원 오후2:00~3:00), Tuned with Nature 가야금병창 판소리(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오후 3:00~4:00), 남사당길놀이 창작국악공연(인사동 경인미술관 마당 오후4:00~5:00)

▷17일(목)=관현악포커스(문예회관 대극장 오후 7:30~9:00), 지영희선생 명인회고전(문예회관 야외무대), 민요(문예회관 야외무대 오후9:20~9:40), 전북한빛농악단(마로니에공원 오후2:00~3:00).

행사기간동안에는 문예회관야외마당에서 국악인 클럽-얼썬!마당(오후 3:00~11:00)과 '우리의 춤과 음악' 슬라이드 상영이 있고 대한민국 국악제 우리악기 장터(오후 3:00~8:00)가 문예회관로비에 열린다. 또 행사 마지막날인 오후 9시 30분 부터는 폐막 뒤풀이가 흥겹게 진행되고 국악인들이 기증한 물품과 친필 서명이 담긴 복등의 경매가 이뤄진다. ▷티켓예매:티켓파크(www.ticketpark.com, 전화 1588-1555) 대한민국국악제 사무국(02-762-1211, 02-3672-6975) ▷홈페이지 : www.kukakfestival.or.kr ▷문의:02-762-1211

제24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진공모전

유네스코 아·태문화센터는 지역내 유네스코 회원국간 상호이해와 우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24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 "의복과 사람들"(Clothes and People)(주최:일

본ACCU) ▷마감일:2001. 6. 15 ▷문의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6 유네스코회관 506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Tel:02-776-8681, Fax:02-776-8682)

전국문화원연합회

향토문화연구자 연찬회

전국문화원연합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에서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향토문화연구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제2차 전국문화원 간사 교육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동안 한국통신연수원에서 전국 211개 지방문화원 간사 및 시·도지회 간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문화정책 △지역문화의 해와 문화원 사업활성화 방안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세와 역할 △인터넷 시대의 향토문화 정보전산화 방법론 △정보전산화(엑셀 프로그램 등) 이해와 응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지회

권용태 신임지회장 취임

서울시지회는 4월13일 오후 2시 권용태 신임 서울시지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관련기사19면)

도봉문화원

도봉서원 춘향제

▷일시 : 4월 3일
▷장소 : 도봉서원

도봉문화원

민화초대전시회



도봉문화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민화동아리인 도린회의 작품을 제주해변 공연장에서 전시했다. 제주문화원이 개최한 민화초대전에 도봉문화원의 도린회를 초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도린회 회원의 민화작품 32점이 전시돼 서울과 제주 등 지역간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 하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화초대전시회에는 양중해 제주문화원장과 이영철 도봉문화원장·하맹사 제주시부시장을 비롯 도린회원·지역인사 등이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작문화원

제7기 동작문화학교 수료식

동작문화원은 지난 4월 30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제7기 동작문화학교 수료식을 열었다.

부산광역시

금정문화원

과학 상상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 물로켓 발사 대회

금정문화원은 4월 29일 장전초등학교에서 과학의 달 기념 '과학상상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

물로켓 발사 대회'를 개최했다. 금정구 관내 초·중학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제1회 금정구민 건강걷기대회

제1회 금정구민 건강걷기대회가 오는 5월 13일 금정산 범어사 일주도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금정문화원과 금정구생활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금정구민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13일 오전 10시 청룡초등학교 운동

장을 출발, 범어사 일주도로를 돌아 청룡초등학교에 도착하는 이번 걷기대회의 참가비는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제1회 부산 청소년 JN문화 Festival

금정문화원은 5월 20일 청소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부산 청소년 JN문화 Festival '2001놀자! 뛰자! 즐기자!'를 개최한다.

▷일시·프로그램 : 5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5시 30분 금정문화원장배 댄스경연대회/청소년동아리 공연, 오후 7시~8시 각테일쇼 경연대회/레크리에이션/초청공연(연합 댄스팀), 오후

8시~9시 30분 대학커풀최강전/방송국 공개녹화방송 미정 /성년의 날 기념 행사 프로그램, 오후 9시30분~10시 인기연예인 초청공연.

※야외무대 : 캐리커처 그려주기 (일반 시민들에게)/그라피티
▷장소 : 부산대 정문 앞 야외특설무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지회

오성근 신임 광주지회장

광주광역시지회는 2월 10일 총회를 통해 차행선 지회장 후임으로 오성근 서구문화원장을 제2대 광주광역시지회장에 선출했다.

광산문화원

제10회 박용철선생 추모 전국백

대구광역시

대구북구문화원

제1회 북구어린이 사생실기대회 및 가족백일장

▷일시 : ①사생실기대회 - 5월 19일(토) 13:00 ~ 17:00 ②가족백일장 - 5월 20일(일) 11:00 ~ 15:00

▷장소 : 북구문화예술촌(구 도남초등학교)

▷대상 : ①사생실기대회 - 북구지역 만 5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②가족백일장 - 북구지역주민 누구나

▷참가비 : 없음

북구문화예술촌·문화학교 개촌식

▷일시 : 2001년 3월 6일

▷장소 : 북구문화예술촌·문화학교 (구 도남초등학교)

일장대회

▷일시 : 4월 19일

▷장소 : 호남대 제2캠퍼스 도서관

경기도

경기도지회

제4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 연수

경기도지회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동안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일성콘도에서 제4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용인문화원

이인영 신임 용인문화원장

용인문화원은 지난 3월 2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이현규원장의 후임으로 잔여임기를 맡을 제12대 원장에 이인영 前 향토문화연구소장을 선출했다.

가평문화원

제2회 한석봉선생 전국회화대회

▷일시 : 5월 13일

▷장소 : 가평중학교 체육관

강원도

춘천문화원

김혜정 신임 간사

춘천문화원은 4월 1일 김에스터 간사 후임에 김혜정씨를 임명했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정선문화원

신석기 유적답사

정선문화원은 지난 4월 13일 문화원 2층 강당에서 강원대학교 사학과 최복규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정선문화유적의 조사와 보존 대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본 문화원의 향토사연구위원 24명은 강의에 이어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제장마을)에 소재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인 적석총과 고인돌을 답사했다. 최복규 교수는 강원고고학회장을 맡고있는 문화유적 발굴 전문가로 이날 답사에서 "돌무지무덤(적석총)은 발굴조사를 해 봐야만 정확한 연대와 사실여부를 규명할 수 있겠으나 지역 구민의 구술과 현지의 사실로 보아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의 무덤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의 고인돌 유적도 답사했으나 경지정리로 인하여원위치에서 50미터 정도 옮겨져 있어 아쉬움을 들게했다.

철원문화원

정재수 신임 사무국장·박영주 신임 간사

철원문화원은 최근 신임 사무국장에 정재수씨, 신임 간사에 박영주씨를 각각 임명했다.

충청북도

충주문화원

제15회 중원취화대회

▷일시 : 4월 21일
▷장소 : 충주교현초등학교 강당

충청남도

금산문화원

비단고을 산벚꽃 축제 2001

▷일시 : 4월 21~22일
▷장소 : 군북면 산안리 산벚꽃단지

서천문화원

원사이전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
▷전화 : (041)953-0166(원장실) (041)953-0123(사무국)
▷FAX : (041)953-0133

당진문화원

대호지 4.4독립만세운동

당진문화원은 4월 4일 당진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호지 4.4독립만세운동기념 사업회를 주관했다.

온양문화원

2001년 3월 사업실적

청소년 문화동아리 작품활동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 온양문화원 교육관

▷대상 : 관내 남녀고등학생 문우동호회(머루네)
▷참여인원 : 47명

제42차 문화현장탐방

▷일시 : 3월 18일 오전 8시 ~ 오후 7시
▷장소 : 전라북도 고창 일대
▷대상 : 문화가족
▷참여인원 : 45명

문화학교 운영

▷일시 : 3월 매주 월, 수, 목, 금, 토
▷장소 : 사랑방, 교육관, 도서관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연 300명)

작은도서관 운영

▷일시 : 매일 오전 7시 ~ 오후 11시
▷장소 : 온양문화원 작은도서관
▷인원 900명
▷대상 : 청소년 및 일반인

학생 한소리패

▷일시 : 매주 토요일
▷장소 : 사랑방
▷인원 : 매주 30명씩
▷대상 : 시내 고등학교 학생

조치원문화원

이원재 신임 사무국장

조치원문화원은 4월 6일자로 사무국장에 이원재씨(53)를 임명했다.

전라북도

김제문화원

제4회 전군선 벚꽃축제기념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일시 : 4월 13일

▷장소 : 전군선 폐도부지내

▷참가학교수 : 초등부 200명 / 중등부 60명 / 고등부 40명

전라남도

전라남도지회

조남식 신임 지회장

전남지회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남식 영광문화원장을 제26대 도지회장에 선출했다.

담양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

담양문화원은 지난 3월 30일 담양읍 백동리 담양신용협동조합 4층 강당에서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고흥문화원

이원우 신임 사무국장

고흥문화원은 이진식 사무국장 후임에 이원우씨(59)를 임명했다.

영광문화원

일본유학의 원조 수은 강항 문화유산 한·일 심포지엄

▷일시 : 3월 30일

▷장소 : 영광군청 3층 대강당 (관련기사 54면)

조통달 명창과 함께하는 소리마당

▷일시 : 5월 11일

▷장소 : 영광 실내체육관 특별무대

경상북도

울릉문화원

서면 태하 성하신당제

▷일시 : 3월 25일

▷장소 : 서면 태하1리 성하신당

경상남도

마산문화원

제1회 시민회화대회

▷일시 : 5월 3일

▷장소 : 마산문화원 강당

진해문화원

제39회 군항제 맞이 제2회 진해시민 회화대회



진해문화원은 제39회 군항제를 경축하고 역량있는 서예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에 진해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진해문화원 주관, 진해시와 이충무공호국정신선양회 후원으로 제2회 진해시민 회화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김병로 진해시장, 김영조 시의회의장, 강수명 진해교육장, 이충무공 호국정신선양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문화원이사, 각 서예학원장들이 참석해 122명의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진해문화원

임진왜란 신호연 전시회 개최

제39회 군항제를 맞이해 진해문화원은 이충무공 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임진왜란 신호연(31점) 전시회를 시민회관 1층 휴게실에서 개최했다. 전시회를 둘러본 관광객들은 특이한 문양의 신호연을 관람하고 난 후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통영문화원

김현식 신임 사무국장

통영문화원은 지난 4월 2일 사무국장에 김현식씨를 임명했다.

日 팔일시시 문화교류단 통영 방문

통영문화원과 국제문화교류관계에 있는 일본 팔일시시의 문화교류단이 4월 27~29일(2박 3일) 통영문화원과 일본 팔일시시의 국제문화교류 가조인을 위해 통영을 방문했다. 방문자는 팔일시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팔일시시의회부위원장, 팔일시시정책감사, 팔일시시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장, 재일교포 등 5명이다.

구당포성 답사

통영문화원은 3월 30일 구당포성을 답사했다.

곡산 봉수대 답사

통영문화원은 올해로 3년째 개최해 오고있는 통영주변 유적지 및 봉수대 답사행사의 일환으로 최근 구전과 지도로만 알려졌던 곡산(구절산) 봉수대를 답사했다. 통영문화원은 봉수대 현장을 직접 답사한 결과 현존하는 남해안 일대(통영, 거제, 고성) 봉수대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해 남해안 일대의 봉수대 복원에 좋은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곡산봉수대를 오르며 진해만이 내려다 보인다고 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당항포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 구절산 정상에 올라야만 멀리 진해만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수대 주변에서도 조선시대 자기파편(초기, 중기, 말기)과 용기파편이 다수 수집되어 임란 전후에 축조된 봉수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수대 남쪽 골짜기에서 봉수꾼의 움막터로 추정되는 터를 발견했으며 또한 이곳 곡산 봉수대에서 천왕점 봉수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봉수대간 거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봉수대 안쪽 내면으로 묘소가 세워져 있고 주변에 잡목이 우거져 가을포 봉수대가 보이지 않는다. 통영문화원은 “이 두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해문화원

제11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시 : 4월 8 ~ 9일

▷장소 : 김해문화원공연장

▷내용 : 김해문화원은 우리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보급하고 계승하고자 옛가야의 종주국인 김해에서 매년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금년에도 지난 4월 8~9일 양일간 전국에서 1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연을 치렀다. 서울대학교 김정자교수, 전북대학교 정희천교수, 전남대학교 성심온교수와 국악인 윤소인, 남해성, 강정렬씨를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이번 대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인 초등부 대상에 서울 여의도초등학교의 김희재양(병창)이, 중등부는 국립국악중학교의 하영수군(기악), 고등부는 국립국악고등학교 이하의 양

(기악)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으며 일반부 최우수상은 광주 문경아씨가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로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 원을,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참가한 박애숙씨가 가야금병창으로 상장과 상금 5백만 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다.

제25회 가락문화제

▷일시 : 4월 7 ~ 10일

▷장소 : 김해일원

제주도

제주문화원

문화유적답사

▷일시 : 4월 29일

▷장소 : 제주도 일대

민화초대전

▷일시 : 4월 9일

▷장소 : 제주해변공연장

▷내용 : 서울 도봉문화원의 민화동아리 도린회 초청 민화작품 32점 전시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의령문화원

문화가족 작품전시회 · 가훈 써주기



의령문화원은 4월 20일부터 4일간 제29회 의병제전(義兵祭典) 및 제1회 의령군민의날을 기념해 18개 문화단체가 참여하는 문화가족 작품전시회를 열었으며 향토출신 저명 서예가를 초청해 '가훈(家訓)과 좌우명(座右銘) 지어드리고 써드리기' 특별행사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은초 정명수선생의 유작품을 비롯해 군내 6개 서예단체

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 50여점과 의령화우회 회원의 산수풍경화 · 한국화 · 추상화등 20여점, 사진동우회 회원작품 40점, 꽃사랑동우회 회원꽃꽂이작품 30점, 전통도자기 50여점, 의령문학회의 시화 및 시사작품 20점과 함께 목공예 작품등 총 26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그리고 99년부터 문화원 중요행사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훈과 좌우명 갖기 무료봉사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향토출신 저명 서예가를 초청해 '가훈과 좌우명 지어드리고 써드리기' 특별행사를 가졌으며 그밖에도 군내 초중고학생의 한글시백일장과 서예 · 미술실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한시백일장 등 각종문화예술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했다.

2001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의령문화원은 지난 4월 6일 군민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강남의 향토문화기행



강남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①오늘의 강남이 있기까지 ②강남의 자연환경 ③강남구는 어떻게 생겨났다 ④강남의세시풍속과 놀이 ⑤강남의 옛문화산책 ⑥옛날 강남에서는 어떤일들이 등 6단원으로 구분하여 꾸며졌다. 강남의 향토문화를 한눈에 볼 수있게 편집돼 있다. 국배판 292면.(강남문화원)

벽골제와 벼농사

김제문화원 향토문화자료17권째 책이다. 김제는 선사시대부터 벼



농사의 고장으로 국내 최고최대의 수리시설 벽골제를 축조하여 벼농사의 신기원을 이룩한 유명한 곳이다. 이 책에는 김제의 지리적여건, 역사적 배경서부터 벽골제와 벼농사, 벽골제에 얽힌 전설, 농경문화의 민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향토문화자료를 실고 있다. 국배판350면.(김제문화원)

榮州鄕土文化研究(제2집)

영주향토사연구지. 이 책에는 '두렛골 서낭제의 제의전통창출에 관한 조사연구' 등 12편의 향토사연구논문이 실려있다.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다시 찾아 지키고 계승하고자 뜻을 함께하는 영주향토사연구회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논문을 골라 단행본으로 만든것이다. 국배판156

면.(영주문화원 부설 영주향토사연구회)

실록속의 천안인(下)



지난해 상권 발행에 이어 올해 하권을 발간했다. 상권에는 "태조시대부터 선조시대에 이르는 실록속의 천안인을 살펴 보았으며 금년에는 다시 광해군시대부터 철종시대에 이르는 천안인들의 행적을 살펴 자료집을 펴내게

완주문화유산탐구



전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김주성교수 등 12분이 분야별로 나누어 집필한 글을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것인가에 대해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박승진 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말하고 있다. 신국판 390면.(완주문화원)

되었다”고 민병달천안문화원장은 책 발간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선인들의 삶의 철학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배판 452면.(천안문화원)

부평향토사

조기준 부평문화원장이 저술한 책이다. 선사시대부터 광복이후까지의 부평의 역사와 부평의 문화유산, 부평의 산천, 부평의 땅 이름까지 향토사 전반에 대하여 저술했다. 부록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현황과 부평의 고지도 13면이 게재되어있다. 국배판 86면.(부평문화원)

榮州史料集(삼국유사·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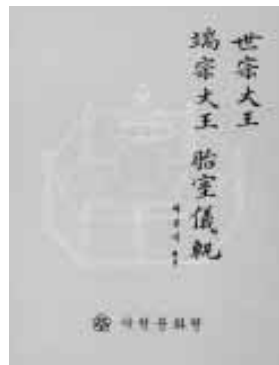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대 4대 역사서인 삼국유사·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에서 영주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향토사를

바로 정립하고 선조들의 위업을 배우고 익혀 자자손손 그 정신을 계승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정지옥원장은 말하고 있다. 국배판 496면.(영주문화원)

世宗·端宗大王 胎室儀軌

사천에서 400년을 보관해 온<세종대왕 태실석난간수개의례> 한권판 약 300년간 보관해온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 수개의례>를 국역해 한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성군 세종대왕의 태실이 사천에 있다는 것은 우리고장의 자랑이다’고 오필근 사천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말하고 있다. 국배판 264면(사천문화원)



영원한 선비 沙溪 金長生

사계 김장생은 한국 유학의 거봉 이율곡과 송구봉의 학통을 계승한 대석학으로 우리나라 예학의 거두이다. 그는 평생동안 ‘가례집

람’ 8권과 ‘의례문해’ 8권, ‘상례비요’ 4권을 편찬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예학의 최고봉 사계 김장생 정신과 발자취를 엮은 책이다. 국배판 180면.(논산문화원)



조선왕조실록 함평사료집

조선왕조실록에서 함평과 관련된 사료를 발췌해 한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서북실문화원장은 “조상들의 생활사를 살피고 익힘으로써 향토역사 문화창달에 보탬이 되고 선현들의 가르침을 깨달아 내일을 밝히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발간사에서 책발간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국배판428면.(함평문화원)



淸原郡의 洞祭



배판 246면.(청원문화원)

청원군내 13개읍면별로 동제를 조사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싣고 있다.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영진 교수와 청주대학교 박물관 박상일 학예연구관이 공저로 발간했다. 조상들의 공동체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동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마을별 동제를 조사 고찰해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은 뜻깊은 일이다. 소중한 향토사료이다. 국

旌善 朝鮮환여승람



판 132면(정선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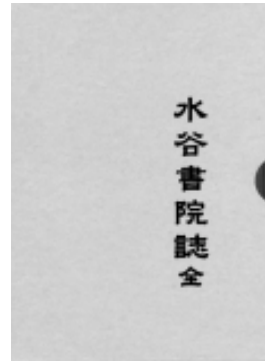
일제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문화유산과 민족정기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 유림들의 노력으로 저술된 '조선환여승람'은 한자로 쓰여진 것이다. 이 원본을 국역하고 원문을 영인해 후면에 싣고 있다. 배선기 정선문화원장은 '이 책이 향토사를 배우고 익히는데 보탬이 된다면 큰 보람이겠다'고 발간사에서 말하고 있다. 국배

水谷書院誌(全)

수곡서원은 조선조 성종때의 학자인 권경우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유림들이 고종11년 건립해 권경우·권경유 선생의 위

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지역의 한 학 발전과 후진양성에 전념하던 곳이다. 현재 양평군 지체면 수곡리에 위치해 있다. 이책은 수곡서원의 모든 것이 기록된 책으

로 정신문화를 되새길 수 있는 자료이다.(수곡서원)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앞면에 유성구의 역사를 요약하고 52개 동별로 연혁과 함께 지명유래를 조사게재했다. 민경용 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명과 그 유래, 마을을 이루고 있는 하천·고개·들·바위 등에 깃들여 있는 따뜻한 마음씨까지도 엿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좋은 향토사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배판480면.(유성문화원)



鐵原郷土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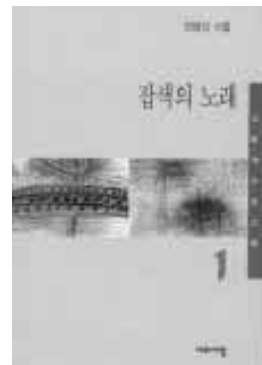
지 다양하게 편집돼 있다.(철원문화원)

철원의 자연환경(지리·자연 특성·기후·동식물의 번식지)과 향사(선사시대·부족 국가시대 생활과 문화·삼국 시대 역사와 문화·통일신라 시대·태봉국의 성립·고려 시대·조선시대·조선의 근대화·대한민국의 발달)를 신고 별도로 연혁과 지방조직의 변천, 교육의 발자취, 농촌경제와 농민생활, 상공업, 역대군수 기관장 명단까

해 '동래부지'를 편찬했다고 하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1995년 이규상 동래구청장이 옛날의 '동래부지'를 저술했다. 이 책은 이규청장의 책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것이다. 많은 시문(詩文)을 원문과 함께 국역했다. 4×6배판 양장 304면.(동래문화원)

잡색의 노래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안용산의 두번째 시집이다. 안용산은 이 시집 自序에서 '맺음과 풀음이 공존하는 이 요동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가던 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사라지는 말들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잡색들의 소리와 몸짓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값5,000.(시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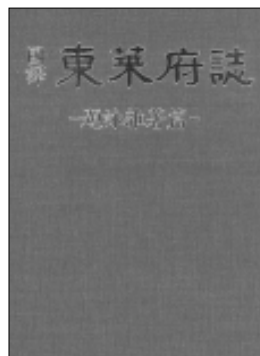
固城文化院五十年史



6.25동란의 참화로 전국토가 황폐화된 1950년도 경남 고성문화원이 문을 열었으니 어느덧 반세기가 되었다. 고성문화원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함에 최선을 다한 전임 선배회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고성문화원 50년사’를 헌정한다”고 제두

근 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말하고 있다. 고성문화원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고성문화원)

東萊府誌



조선조 영조16년(1740) 박사창 부사가 '장산후지'와 '동래승람'을 참고하고 읍인을 일일이 방문

월간 '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궁삼면 토지회수투쟁 자료집



궁삼면의 토지는 구한말 경저리 전성창과 탐관오리 김영규의 농간으로 농민들 소유의 땅이 경선궁 소유로 둔갑하고 다시 일제수탈의 첩병인 동양척식회사 토지로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신한공사에 편입된다. 이규수 씨가 엮은 이 책은 궁삼면의 빼앗긴 토지를 회수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옛 자료와 함께 싣고 있다. (나주문화원)

▲막사발로 녹차마시는 벗들

김기원 시집 (도서출판 청학)

▲일제하 경기도지역 종교계 민족문화운동 4×6배판 428면
값18,000원(경기문화재단)



이달의 정기간행물

- 영주문화사랑 창간호(영주문화원)
- 간행물윤리 통권 273호(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文化藝術 2001. 4(한국문화예술진흥원)
- 寶城文化 제9호(보성문화원)
- 월간 이벤트 2001. 4(이사모)
- 畿甸 문화예술 3. 4(경기문화재단)
- 놀피문화 2001(대구서구문화원)
- 仁川文化 제81호(인천문화원)
- 回龍문화 2001. 봄호(의정부문화원)
- 미르 2001. 4(국립극장)
- 문화가족 제20호(진해문화원)
- 오산문화 제20호(오산문화원)
- 수원사랑 2001. 4(수원문화원)
- 동래문화 창간호(동래문화원)
- 魚登골문화 제2호(광산문화원)
- 포천문화사랑 제49호(포천문화원)
- 咸安文化 제6호(함안문화원)
- 金浦文化 제12호(김포문화원)
- 無等文化 제8집(광주북구문화원)
- 長興文化 제22호(장흥문화원)
- 늘푸른 수원 제167호(수원시)
- 세계무속신문 제21호(세계무속신문사)
- 문화유성 2001. 4(유성문화원)
- 公州文化消息 제221호(공주문화원)
- 대전문화사랑 2001. 4(대전중구문화원)
- 스산의 숨결 제209호(서산문화원)
- 韓國民俗新聞 제153호(한국민속신문사)
- 유성소식 제103호(유성구)
- 민속소식 제67호(국립민속박물관)
- 문화공간 제4호(세종문화회관)
- HANBOK 2001. 4(온고지신)
- 咸平文化 제28호(함평문화원)
- 濟州文化 제6호(제주문화원)

한양의 용문화 오방토룡제에 대한 연구 ㉔

동서를 막론하고 용에게 인격을 부여하였던 의인관(依人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즉

“He said to……” “……而言曰……”

에서 곧 용(龍)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언동(言動)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Dragon→Serpent 는 성서(聖書)에서 Satan과 같은 악(惡)의 상징으로 혹은 지혜의 상징으로 표시되기도 하였으며 동양(東洋)에서 역시 용은 흔히 국가나 군주와 관련되어 선신(善神)으로, 또는 악신(惡神)으로 표시됨으로써 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적 이원론에 입각한 신관(神觀)에 의하여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Dragon이 bright, eye 등과 동일계의 어원으로 부터 출발된 낱말이라면, bright와 spirit 그리고 Dragon 間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bright는 영명한, 재치있는, 총명한 등등으로 번역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영명한, 재치있는, 총명한 등의 형용사는 spirit 즉 영(靈), 그리하여 영검(靈劍), 영괴(靈怪), 영덕(靈德), 영몽(靈夢), 영묘(靈妙), 영물(靈物), 영상(靈想) 등의 접두(接頭)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연계(連繫)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에 타당성(妥當性)이 인정된다면,

“Dragon = Serpent = Bright = Spirit”

라는 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용(龍) = 영(靈)’의 공식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용(龍)에 관한 해석을 들 수 있다.

“靈龍雙聲字故通段”

“龍之爲物 變化無瑞 說解因著 其靈異如此 以能昇天 神其物而命之曰靈 是龍音由靈 寄也故部屬靈”



김영섭(金榮燮)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동대문문화원 원장. 청룡문
화재보존위원회위원장.
저서로 『이것이 침향이다』 외

이라 하였으니 용음(龍音)이 영(靈)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용(龍) = 영(靈)〉의 공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호국신과 제왕의 상징 용

용(龍)은 그 무한하고 경이로운 통치력(統治力) 때문에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제왕(王)의 권력이나 지위로 상징되어 왔다.

곤룡포(袞龍袍, 龍袍) · 용상(龍床) · 용가(龍駕) 등과 같이 임금이 사용하는 물건은 말할 것도 없이 임금의 신체 부분을 용안(龍顏) · 용발(龍鬚) · 용루(龍淚)라 하여 임금과 관계 있는 것에는 모두 ‘용’이란 접두어를 붙였다.

이러한 용에 대한 생각은,

“龍-君王-王”

의 관계로 발전되고 결국에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어 용의 호국 사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죽어서 동해의 용왕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라 문무대왕의 이야기는 호국룡을 표현하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용(龍)은 옛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왔다. 따라서 절대권력을 상징하는 제왕(帝王)의 복식(服飾), 용포로 사용되었으며, 용안, 용좌, 용상등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전국 각지에는 용자(龍字)가 붙는 지명(地名)뿐 아니라 인명(人名)도 많으며 전설도 흔히 있는데, 이것은 용과 같이 위대하고 대성을 얻원해서 붙인 것이다. 풍수설(風水說)에서는 동방을 청룡이라 해서 태양이 솟고 서기(瑞氣)가 있는 곳에 용을 배치해 놓았다.

용이 가진 장엄하고 하려한 성격 때문에 흔히 용은 위인과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면서 왕권이나 왕위가 용으로 상징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천자(天子)에 대하여 그 얼굴을 용안(龍顏), 덕을 용덕(龍德), 지위(地位)를 용위(龍位), 의복을 용포(龍袍)라 하였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임금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졌

다. 이중 용포는 임금이 시무복(視務服)으로 입던 정복(正服)의 하나이다. 임금이 앉는 평상(平床)을 용상(龍床)이라 하였고, 임금이 타는 수레를 용가(龍架) · 용거(龍車), 임금이 타는 큰 배를 용가(龍舸),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龍淚)라 하였으며,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얹힌 모양을 수놓아 만든 천자의 기를 용기(龍旗)라 하였다. 이처럼 임금과 관계되는 것에는 거의 빠짐없이 ‘용’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호칭하였다.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용의 무한하고 경이로운 조화능력을 인정한 때문이며, 이러한 생각은

“용-군왕-하늘”

의 관계로 맺어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하여 호국룡사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왕의 상징으로 용을 등장시킨 본격적인 문학으로서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우선 그 명칭에서부터 용의 승천을 주요한 주제로 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먼저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용의 사례를 제시해보면,

해동육룡 제1장

흑룡 백룡 제22장

와룡(臥龍) 제29장

잠룡(潛龍) 제55장

드르헤용 제69장

용안 제97장

물 우횃 용, 집 우횃 용 제100장

망룡의(莽龍衣) 곤룡포 제112장”

등이 있다. 이상에 소개한 용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해동육룡’, ‘잠룡’, ‘드르헤 용’, ‘용안’, ‘망룡의 곤룡포’는 모두가 제왕의 상징으로서 용이 사용된 예다. 제1장의 ‘육룡’은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태조(太祖) 태종(太宗) 등 6

명의 왕을 의미한다. ‘잠룡(潛龍)’은 태조를, ‘드르헤 용’은 중국 신(新)의 경시제(更始帝)를 의미하고, ‘용안’과 ‘망룡의 곤룡포’는 제왕을 의미하는 형용사이다. 그리고 제29장의 ‘와룡(臥龍)’은 위대한 인물을 의미하는 말일 뿐 큰 중요성은 없다. 위의 용들 중 주목되는 것은 제 22장의 ‘흑룡’ ‘백룡’, 제 100장의 ‘물 우횃 용’은 중국의 송태조(宋太祖) 조광윤(趙匡胤)이 장차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기 위하여 등장하였고, 같은 장의 ‘집 우횃 용’은 이태조가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에 비하여 제22장의 ‘흑룡’ ‘백룡’ 역시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는 구실을 하지만 다른 예와는 구별되는 일면이 있다. 즉 백룡을 도와서 흑룡을 퇴치하였으며, 그 결과 백룡이 도조에게 장차 자손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백룡의 존재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나타난 예와는 다르고, 흑룡은 다른 용들과는 전연 구별되는 이른바 악룡(惡龍)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제22장은 단순히 제왕의 상징으로서 용이 등장한 것만이 아니고, 용에 대한 근원이 오래된 민간설화에 수용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용이 등장된 『용비어천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주역』 건괘(乾卦)에 용의 진로를 응용하면서 흥미있게 노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용이 물을 얻음으로써 조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민족의 지도자요 통솔자인 군주는 용의 호신(護身)을 받아야만 막중한 천하를 다스릴수 있는 자천우지(自天祐之)의 능력을 펼수 있다는 사고가 상고로부터 있어 왔으니 여기에서 흔히 용은 국가 최고의 통치자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것은 용이 물(水)을 얻는 것이나, 사람이 용의 호위를 받는 것을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군주가 앉는 등의자(騰椅子)를 용상(龍床)이라 일컫고, 의복도 곤룡포(袞龍袍)라 부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청(淸)

나라는 국기(國旗)를 용기(龍旗)로 정하였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상고(上古) 복희씨(伏羲氏)가 왕천하(王天下)한 소이(所以)는 하수(河水)에서 용도(龍圖)를 얻음으로써 조화의 화권(化權)을 얻게 되었던 것이며 그 후 황제는 마침내 용수(龍鬚)에 매달려 승천하였다는 등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상징성을 제 22장을 중심으로 다루되 이와 유사한 용설화인 거타지 작제건의 용설화와 비교를 시도하여 또 한편으로는 용신사상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용비어천가는 우선 그 명칭에서부터 용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며 용의 상징에 입각해서 작품이 전개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자료 제시를 위해서 『용비어천가』에서 용이란 말이 나타나는 예를 전부 제시하겠다.

- A. 1장 “海東六龍이 ㄴㄹ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 B. 22장 “黑龍이 ㄴ사래주거 白龍을 살아내시니 子孫之慶을 神物이슬 ㄴ니”
- C. 29장 “臥龍”
- D. 55장 “潛龍未飛에 北人이 服事 ㄴ스 弓劍고 ㄴ좁左右에 ㄴ쫓 ㄴ즈비미”
- E. 69장 “드르헤 龍이 ㄴ싸호아 四七將이 일우려니 오라흔들 오시리잇가”
- F. 97장 “龍顏”
- G. 100장 “물 우횃 龍이 江亭을 向하스 ㄴ니 天下平定흔 ㄴ지르다”
- H. 100장 “집우횃 龍이 御床을 向하스 ㄴ니 寶位 ㄴ실 ㄴ지르샏다”
- I. 112장 “莽龍衣 袞龍袍”

이상의 예에서 나타난 용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A, D, E, F, I는 제왕(帝王)을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A. 육룡은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태조(太祖), 태종(太宗)의 육명(六名)의 왕을 의미한다.

B. 잠룡(潛龍)은 태조(太祖)를 의미한다.

E. 용은 중국 신(新)의 경시제(更始帝)를 의미한다.

F. I. 용은 제왕을 의미하는 형용사이다.

그리고 C. 와룡(臥龍)은 위대한 인물을 의미하는 말일 뿐 큰 중요성은 없다.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B, G, H의 예에 나타난 용인데, 이는 제왕이 되는 것을 알리는 신비스러운 예언자(預言者)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즉,

G. 용은 중국의 송태조(宋太祖) 조광윤(趙匡胤)이 장차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기 위해 나타났다.

H. 용은 이태조(李太祖)가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豫言)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B의 예 역시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는 구실을 한다. 이 제22장은 단순히 제왕의 상징으로서 용이 등장한 것만이 아니고 용에 대한 근원(根源)이 오래된 민간설화에 수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제22장을 제외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용들은 용의 신앙이나 용에 대한 설화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제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는 왕위에 오를 것을 말해주는 예언적 창조의 상징(象徵)으로서 용이 쓰였을 뿐이다. 이는 『용비어천가』의 작자들이 용이 가지는 본래적인 성격에 관심이 없는 합리적인 유학자들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의 서사시(敍事詩)로서 『용비어천가』가 성공할 수 없었던 한 원인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창작되었던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용의 설화적인 모습들이 대량 등장한다. 이는 인도에서 기원한 불경에 입각해서 노래를 창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따라서 동일한 작자들이 다른 용이라도 『용비어천가』의 경우와는 엄밀히 분리되어야 한다

고 본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용비어천가』 제 22장에 나타난 용의 설화는 다른 부분의 화석화(化石)된 용과는 의미가 다른 근원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유일한 예로서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타지와 작제건의 예를 제시하고 분석하겠다.

거타지가 용을 구출한 설화의 내용은 이렇다.

A. 항해 중 풍량이 사나워졌다. B. 점을 치니 섬에 연못(神池)이 있기 때문이라 했고, 꿈에 노인이 나타나 선사 일인(善射 一人)을 남겨 두고 가라고 했다. C. 목간(木簡)에 이름을 써서 던지니 거타지의 것이 가라앉았다. D. 섬에 내린 거타지에게 서해약(西海若)이란 노인이 나타나 사미(沙彌)를 퇴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 사미가 노룡간(老龍肝)을 취하기 위해 송주(誦呪)를 하는 것을 활로 쏘아 죽이니 노호(老虎)였다. F. 용의 딸과 거타지가 혼인했다.

작제건이 용을 구출한 설화의 내용은 이렇다.

A. 항해 중 풍량이 사나워졌다. B. 점을 치니 고려인(高麗人)이 내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나 작제건이 섬에 내렸다. C. 섬에 내린 작제건에게 사해용왕(西海龍王)이라는 노인이 나타나 불(佛)의 모습을 한 자를 퇴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D. 불(佛)의 모습을 한 자가 나타나 용의 두통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취라격고주악(吹螺擊鼓奏樂)을 하는 것을 활로 쏘아 죽이니 노호(老虎)였다. E. 용의 딸과 작제건이 혼인했다. F. 신물을 얻어 돌아오다. G. 장차 작제건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을 용이 예언하다.

이 두 설화의 내용은 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설화로 간주해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나서 다음에 그 차이점을 밝혀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인류가 탄생과 죽음, 젊음과 늙음,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 등의 경험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인간 자신이 아닌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갈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작게는 한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단위까지 믿음의 대상에게 기원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통해 만사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단위의 존재 근거를 세움으로써 흔들림없는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설화에서 제일 중요한 점도 풍우(風雨)를 일으키는 등의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용이 늙은 여우의 주술(呪術)에는 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에 의지해 이를 퇴치한다는 데 있다. 악마가 영웅에게 바로 도전하지 않고 용에게 도전하며 용은 영웅에게 구원을 청한다는데 이 설화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용(龍)은 노인으로 나온다. 용(龍)이 인자스러운 노인으로 변모되었음은 용(龍)의 대단한 발전이며, 동시에 영웅과 신비적인 세계의 매개체(媒介體)로서 용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용왕(龍王)의 딸과 영웅이 결혼했다는 사실, 보물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또는 장차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는 사실이 이 설화의 결론인데, 이는 영웅에게 신비적 능력이 부여됨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즉 이 설화에서는 용이 영웅에 의해서 구출되면서 영웅에게 신비적인 능력을 주는 매개자(媒介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거타지의 경우와 작제건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으니 작제건은 용에게 신비적인 보물을 얻고 또 자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는 데 있다. 이런 차이는 오히려 작제건 설화가 순수성(純粹性)이 적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필자의 견해로는 거타지 설화는 자연적인 설화이며, 이런 설화를 자기네들의 선조를 영웅화하기 위해 차용한 결과 작제건의 설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서사시의 형성과정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도조(度祖)의 용구출설화(龍救出說話)는 이와 흥미 있는 대조를 이룬다. 도조(度祖)라는 영웅이 용을 구출해 내었고, 그 대신 용이 장차 자손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했다는 점에서는 작제건의 경우와 일치하나, 다른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위의 작제건 설화 분석에서 지적한 A, B, F, G가 없고 악마가 여우가 아니라 흑룡으로 동류(同類)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 즉 善龍(백룡)과 惡龍(흑룡)과의 싸움에서 영웅이 선룡(善龍)을 돕고 악룡(惡龍)을 퇴치(退治)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타지, 작제건 계통의 개작(改作)이라고만 해석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계통의 전승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거타지와 작제건의 계통에서 여우가 불교로 가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흑룡이 오히려 더욱 원초적인 무엇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점에 있어서는 도조(度祖)의 설화는 원래의 설화적 가치를 대폭 제거하였다.

필자의 견해로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작자들은 도조(度祖)란 인물을 영웅화하기 위해서 용구출설화(龍救出說話)를 차용한다. 차용하되 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변질시켜 장차 왕이 되리라는 예언만 강조하고 그 외의 것은 삭제(削除)하였다. 이런 점에서 거타지와 작제건의 설화적 상징성은 큰 변질을 가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개성(開城)·궁실조(宮室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태종(太宗)이 경복궁(敬德宮)에 있을 때 하루는 새벽녘에 광채찬란(光彩燦爛)한 백룡(白龍)이 태종(太宗) 침실(寢室) 위에 나타났다가 사람들이 보매, 홀연히 운무(雲霧)에 싸여 어디론지 사라졌다.”

여기서 태종이 용(龍)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실제로 태종은 사후에도 ‘태종우(太宗雨)’ 로써 비를 내리는 용임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3. 국가 제사에 대한 이해

모든 국가전례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이 吉禮 즉, 제례였다. 우리 민족이 포함된 동양사회에서 유교사상이 정신적 기반으로 자리잡는 과정과 연관되어 제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삶의 바탕으로 인식되었다. 다른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문화양상이 나타나는데, 세계 각처에서 연일 거행되는 수많은 종교적 행사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민족을 탄생시킨 신에 대한 저마다의 종교적 행사를 우리 식의 표현을 써서 부른다면 당연히 제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인류가 탄생과 죽음, 젊음과 늙음,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 등의 경험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인간 자신이 아닌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갈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작게는 한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단위까지 믿음의 대상에게 기원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통해 만사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단위의 존재 근거를 세움으로써 흔들림없는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농업국가였다. 많은 종류의 농작물들은 물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곧 비를 의미하였다. 특히 농업의 주종을 이룬 벼농사는 원산지가 고온다습한 동남아 지역이었고, 한국은 장마철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전후에는 한발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어서 벼농사에 필요한 강우량은 적절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수리시설이 부족했던 옛날일

수록 기우제는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심각하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농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비였기 때문에 기우제는 하나의 연중행사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왔다.

1) 국조오례의 길례 - 기우제 분석

『국조오례의』는 다섯 종류의 의례적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한 예전으로 길례·가례·군례·빈례·흉례의 순으로 편술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가적으로 행하는 각종의 제사에 관한 의례를 길례라고 한다.

(1) 자연신앙의 제도화

국조오례의에서 각종의 제사는 大祀·中祀·小祀·祈告祭·州縣祭·俗祭로 구분된다. 고려나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제사의 대상으로는 天·地를 포함하여 風·雲·雷·雨라든가 명산이나 대천 등의 여러 자연신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급하여 생활수단의 대부분을 자연에 의존해야 했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자연현상 자체가 곧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는 외경스러운 존재였으므로, 자연에 대한 숭앙은 필연적이다.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많은 내우외환의 시련을 겪고 수립된 조선왕조에서는 그러한 자연신의 숭앙의례에도 큰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잡다한 자연신앙에 대한 淫祀를 대폭 정리하여 祀典에서 아예 제거시키는 한편, 나머지 자연신에 대해서도 유교적 예제에 따라 그 등급과 서열 및 치제의 형식을 많이 조정하기에 이른다. 고려시대에 정립된 祀天·祭地의 의례인 圓丘·方澤祭는 이때에 와서 폐지되었으며, 風·雲·雷·雨·岳·海·瀆이라든가 先農·先蠶·雩祀와 같이 인간의 일상생활이나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연신들은 일괄 격상시켜 中祀로 받들고 나머지 자연신에 대해서는 小祀로 일

팔 정립하되 도교 혹은 불교와 결부된 민속적 祈禳祭를 대폭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2) 제사의 시일

국조오례의 상의 각종제사는 제사의 시일과 관련하여 제의의 종류나 성격이 다르다. 國朝五禮儀序禮에 의하면 제사는 ①제사를 행하는 날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제사와 ②일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은 제사가 있다.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제사의 경우 종묘의 薦新·薦禽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사날을 점차 받도록 되어 있다.

조선왕조 초기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정립된 여러 자연신과 그 제일은 다음과 같다. 우선 中祀의 대상으로서 ①풍운뇌우와 악해독은 이미 살핀 대로 천신 지기의 종류로서 춘추의 중월 상순에 제사하는데 그 단은 남교에 있고 거기에는 성황도 함께 제사하였다. ②선농단은 동교에 있으며 전설적인 농사신인 신농씨·후씨씨를 대상으로 경칩 후 첫 해일에 제사하며, ③선잠단은 동소문 밖에 있는데 잠신인 西陵氏를 계춘의 첫 巳일에 제사하였다. ④동대문 밖에 우사단을 설치하여 맹하 상순에 정기적으로 기우제를 지냈는데, 木神인 句芒氏·火神인 祝融氏·土神인 后稷氏·金神인 蓐收氏·水神인 玄冥氏 등을 함께 향사했다. ⑤또한 소사로서의 馬祖는 마신인 天駟星이며, 선목은 맨처음 말을 기른 자이고 마조는 맨처음 말을 탄자, 馬步는 말을 해치는 신이라는 것인데, 각기 仲春·仲夏·仲秋·仲冬의 중간 절후에 지낸 후 剛일에 제사하였다. ⑥영성은 풍년을 맡은 天田星이니 입춘후 辰일에, 노인성은 수성으로서 추분날에 명산대천은 춘추의 중월에 사한은 수신인 현명씨를 제사하는데 계동에 얼음을 저장할 때와 춘분날 빙고의 문을 열 때 제사하였다. ⑦禘祭는 군기에 대한 제사로 경칩과 상강날에 그리고 ⑧여제는 의탁할 때 없는 여러귀신들에 대한 제사로 청명날과 여름의 7월 15일 및 가을의 10월 초하루에 행하는데 여기에는 성황신을 함께 향사하였다. 이밖에도 현실상의 요청

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 형태의 제사가 공공연한 국가적 행사로 계속 거행되었다. 국조오례의에 이르러 나타나는 제사 시일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우선 종묘의 경우 고려사에서는 四時 大享 및 제협(諱示合)제사를 드리는 제향처였을 뿐이었으나 국조오례의에서는 종묘에서 俗節의 제사도 실행하고 있어 그만큼 종묘가 왕실의 선대 조상에 대한 제향처로서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운뇌우에 대한제사는 종래 風師와 雨師·雷神을 각기 별도로 제사지내던 것을 洪武禮制에 의거 풍운뇌우의 신으로 합칭하여 산천신·성황신과 더불어 합제하게 되면서 제사 시일도 홍무예제의 규정에 따른 것 같다. 선농제의 경우 고려사에서 맹춘 吉亥에 제사하는 것은 원구제와 관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에 들어와 원구제가 祀典상의 正祀에서 일찍이 제외되면서 선농의 제사가 더 이상 맹춘길해에 거행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태종1년 12월, 종래 맹춘에 거행했던 籍田의례는 秦의 제도로서 당 開元禮나 宋制와 다르고, 또 우리나라의 절기에도 맞지않으므로 경칩뒤로 祭日을 바꾸게 된다.

마조·선목·마보를 剛일에 제사하도록 정하여진것도 태종조였다(태종11년 10월)이었다. 司寒祭는 季冬의 藏氷때와 春分의 開氷때에 제사하도록 월령상으로는 이렇게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월령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장빙과 개빙하는 날에 맞추어 제사하도록 세종조에 정하였다. 이밖에 고려사에 없는 영녕전·巖瀆海·명산대천·역대시조·雩祀·노인성·마제·포제·영제·독제·여제 및 기타의 속제(문소진,진진,의묘,산릉)의 제일도 거의 모두 태종조 이후 祀典의 정비과정에서 상정되었다. 이 가운데 악독해 및 명산대천·노인성은 태종조에 전국소재의 고산 대천을 각각 사전에 중·소사로 나누어 등재함에 따른 것으로 이때 제일을 모두 春祈秋報의 원리에 따라 정한 듯 하다.영녕전·영제·마제는 세종조에 사전에 등재된 것이다. 영

녕전은 세종조에 태조의 선대사조를 제사하는 별묘로 건립하면서 제일은 종묘제향과 차등을 두기위하여 춘·추의 두차례로 한정하였던 것이다.

영제는 祈請을 위한 제사로 상정고금례에서의 제사였으며 조선왕조의 사전에 등재된 것은 세종조였다. 마제는 세종조에 강무일에 치우(蚩尤)에게 제사지내는 것으로 강무일을 하루 앞두고 제사하도록 정했다.

국조오례의의 길례에 보면, 각 국가제사 및 지방제사가 언제 거행되는지에 관하여 규범을 정해놓고 있다.

오방토룡제는 제사의 기일이 정해져으나 제사의 실행여부는 ①가뭄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처한 상황, 즉 매우 절박하고 급한 상황을 고하고 강우를 기원하는 제사와 ② 보사로서 가뭄에 대한 기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경우로 진행되었다. 오방토룡제는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국가길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오방토룡단의 규모유추

제사의 대상을 천신·地祇·인귀로 나눈다면 이 가운데 천신지기에 대한 제사는 대개 제단에서 행하며 인귀에 대한 제사는 가옥구조를 한 묘우에서 행해진다. 오방토룡제는 천신지기의 제사에 속하므로 사당묘우의 제사가 아니며 제단 설치의 규모는 풍운뇌우단의 규격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4)삼국시대의 기우

비에 대한 관심은 단군신화에서부터 이미 나타난다. 환웅이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하강했다는 것이 그것인데 거느린 3신이 모두 비에 관한 신이니 비에 관한 관심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각각 시조묘 명산대천 등에 기우제를 올렸던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보인다.

그 중에는 왕이 직접 제사했다는 기록도 있다. 또 “옛 부여의 풍속에는 비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고 오곡이 익지 않으면 허물을 왕에게 돌리고 혹은 마땅히 바꾸어야 하다던가 혹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유명한 기록도 있다. 이것은 역시 부여에서도 농경과 비를 중요시하고 왕은 능히 비와 가뭄을 조절할 수 있는 雨師적 존재여야 한다고 여겼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은 고구려의 시조신 동명성왕이 하백의 외손으로서 다양한 우사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母神 유화부인도 수신·곡모신으로 신화를 형성하게한 기반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같은 부여계로서 동명을 시조신으로 계승한 백제에서도 동명제는 기우제의 대상이었다. 신라시대에는 2대 남해차차웅의 부인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역시 농경사회의 기우제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관념에서 형성된 신화적 계보화임을 짐작시켜주고 있다. 신라 진평왕 시절에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서 비를 빌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시장을 옮기고 용의 그림을 그리고 하는 기우제의 방법은 최근까지도 행해지던 방법이었어서 그 오랜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5) 고려시대의 기우

고려시대의 기우제는 온갖 가능한 방법이 다 동원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보인다.

여러 문헌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기우제의 사제자로서는 국왕 이하 문무백관, 지방수령, 승려, 무당들이 다 동원되어서 유·불·도교와 무속기우제들이 고루 거행되며, 祭儀의 대상으로도 천지, 산천, 종묘, 사직, 사찰, 용신들이 다 동원되는데 여기서는 자연용신의 비중이 부상되기도 한다.

종묘사직에서는 물론, 비를 비는 법회도 열고 道敎의 太一에 醮祭도 올렸다. 그중 잦았던 것은 무당을 모아서 비를 비는 聚巫禱雨의 기록이다. 많을 때는 300명(인종 11년 5월) 250명(인종 12년 6월)을 모으고, 긴 날짜로는 7일씩 흠으로 용을 만들고, 시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원시장터에서 기우제를 했다. 가뭄이 생기면 우선 조정에서부터 국왕과 배관들이 근신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전날 목 신호등 불빛이 바뀌려하면 속도를 줄여 차를 멈추기 보다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껌싸게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도 손님이 내리기도 전에 비집고 먼저 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모두 조금증에 걸려있는 것일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다. 모든 것에서 한박자 쉬는 느긋함이 있었다. 우리민족은 원래 조금함 보다 은근함과 끈기, 품위와 멋, 여유만만한 심성을 누렸다. 그런데 개발 지상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눈치 살피고 남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더한다. 이제 제발 조금증을 버리고 좀 느긋해졌으면 좋겠다. 중국인처럼 '만만다'는 아니더라도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다.(柳)

다시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다. 조금 살만하다 싶더니 더 큰 된서리가 몰아친다. 빈부격차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사회가 합일을 이뤄내지 못한채 모래알처럼 분열되고 있다. 해외유학·이민을 한두번 생각안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다. 기업체도 이만저만 어려움을 겪는게 아니다. 매출이 감소하고 출자가 안들어온다. 사람을 줄이는 것도 부작용이 크다. 잘못하면 회사분위기가 엉망이 되기 십상이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유발했는지 따져보는 것도 이제 권태로를 뿐이다. IMF 고통이 아물기도 전에 다시 시련이 온다는 것은, 뭔가 암적인 요인이 숨어 있다는 증후다. 이 즈음 다시 우리의 문화 혹은 우리의 철학을 생각 아니할 수 없다. 허약한 문화·흔들리는 철학이란 대지위에 세운 누각은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울지 몰라도 바람이 불면 종이장처럼 쓰러진다. 그안에 누가 살려고 할 것인가.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다시한번 밑바닥을 내려다 보자.(敗)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발행 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전국 문화원 현황

우리문화원은 전국에 2백11개 있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 •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금천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부산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 사상문화원 • 금정문화원 •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대구북구문화원 • 대구서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 • 부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 광주남구문화원 • 광주북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 • 울주문화원 • 울산중구문화원 • 경기도 • 경기도지회 • 수원문화원 • 성남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안양문화원 •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하남문화원 • 용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의왕문화원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춘천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군문화원 • 양양문화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 • 청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청원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괴산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청양문화원 • 홍성문화원 • 예산문화원 • 태안문화원 • 당진문화원 • 대천문화원 • 온양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 • 전주문화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정읍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완주문화원 • 진

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 • 목포문화원 • 여수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나주문화원 • 광양문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 • 포항문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상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산문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함천문화원 • 제주도 • 제주도지회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